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0. 8. 25.(화), 14:00 ~ 14:2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 출석위원 : 신안준(위원장), 권기혁, 김연희,
김이순, 김종헌, 목수현, 안창모,
오용섭, 이광표, 윤균, 추미경(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주변 정자 신축	(공 개)
2	「인천 팔미도 등대」 사적 지정	(공 개)

【검토사항】

3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4	「속초 동명동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5	「독립신문 상해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6	「안중근 재판 공판 관련 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7	「이병태 일기(내가 겪은 4·19 데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보고사항】

8	<근대문화재분과 제8차 소위원회 결과보고> - 국가등록 제292호 「경주 우안 양수장」 현상변경(양수장 이전)	(공 개)
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1.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주변 정자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주변에 정자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서울대학교 본관」 주변에 정자를 신축하는 계획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종로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구 서울대학교 본관 (사적 제278호, '81.9.25.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30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24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 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 : 약 25m
 - 세부내용 : 정자 신축
 - 건축면적 / 연면적 : 18.72㎡ / 18.72㎡
 - 건축규모 / 건축구조 : 지상 1층 / 한식목구조
 - 최고높이 : 5.01m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8.14.) : ○○○, ○○○

- 신축 정자의 배치 계획을 살펴 본 결과, 구 서울대학교 본관 건물을 가로에서 볼 때 큰 저해 요소는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신축 정자의 기초 부분을 시공할 때 지하에서 유구가 발견될 가능성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못과 정자 간 높이 차가 낮아 곰팡이 등의 습기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 대책을 고려해야 함.

- 정자 설계 시 입식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내부에서 이용 시 휴식과 전망을 고려하여 설계(난간 앞 벤치, 툇마루 등)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마. 의결사항

- 부 결
 - 주변 근대문화유산과 어울리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출석 11명 / 원안가결 2명, 부결 9명

2. 「인천 팔미도 등대」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인천 팔미도 등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6.16.)를 거쳐 지정 예고 한 「인천 팔미도 등대」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인천광역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인천 팔미도 등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 '02.2.4. 지정)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로 28(무의동 산373)
 - 소유자 :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면적 : 문화재구역 25.8㎡(등대 및 돌담), 문화재보호구역 966.2㎡
 - 건립시기 : 1903년
 - 구조 : 콘크리트조
- (3) 심의사항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 (4) 지정예고 : '20.6.24~7.23.(30일간) *의견없음
- (5) 추진경과
 - ('20.1.8.) : 사적 지정 신청(인천시→문화재청)
 - ('20.5.21.)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0.6.16.) : 문화재위원회 검토(원안가결)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5.21.)

-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개시를 알리고 맥아더 장군의 연합군함대가 인천만으로 안전하게 상륙,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 전체적으로 건축 당시의 기본적 건축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등롱 및 등명기의 유지관리 상태도 양호하며, 대한제국기 건조물로서 원형의 보존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국내 현존하는 등대 중 가장 오래된 등대로서 대한제국기부터 근대기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성, 상징성, 대표성, 지역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관련기록을 통해 연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적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 ○ ○ ('20.5.21.)

- 인천 팔미도 등대는 약 100여년 동안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였음. 동력 전환 단계마다 등명기의 회전 기계 변천사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잘 남아있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6·25 전쟁 국면 전환을 도모하는 군사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므로 사적 지정 가치가 높음.

○ ○ ○ ○ ('20.5.21.)

-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상륙작전 전개 시 미 극동군사령부 클라크대위의 주도로 팔미도 등대의 항해등이 복구·점화되었고, 팔미도 등대의 불빛으로 아군함선들이 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월미도 및 인천항 등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음.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고 그로 인해 6·25전쟁의 국면이 일시에 뒤바뀌게 한 소중한 문화자산으로서 팔미도 등대는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평가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제척 1명

<붙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0.5.21.(목)	대상 문화재	팔미도등대	
조사자	성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근대건축	○○대학교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팔미도등대		
	③입지 현황 및 역사 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제한)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보존정비 및 활 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5월 21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 ○○○</p> <p style="text-align: right;">문화재청장 귀하</p>				

팔미도등대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별첨자료)

1. 문화재 종류

○ 사적

- 팔미도등대(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 2002년 2월 4일 지정)을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인천 팔미도등대

-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현재 문화재 명칭인 ‘팔미도등대’보다 ‘인천 팔미도등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팔미도(八尾島)는 서해안에서 인천 앞바다에 위치한 면적 75,670 m²의 작은 섬으로 인천항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15.7 km 떨어져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에 위치.
- 지름 300m 정도의 섬과 그 북동쪽에 위치한 암석(sea stack) 형식의 작은 바위섬이 사주(沙洲)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그 형상이 마치 여덟 팔(八)자처럼 양쪽으로 뻗어 내린 꼬리와 같아 팔미도라 지칭.
- 작은 섬이지만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서북쪽에 영종도와 무의도, 남쪽에는 대부도, 영흥도, 자월도 등의 주변 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지리적으로 해상교통에서 중요한 역할.
- 팔미도는 지리적 장점과 해상교통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서도 역할을 하였으며, 1904년 러일전쟁 제물포해전, 1950년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당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팔미도는 팔미귀선(八尾歸船)의 아름다움, 즉 서해안 낙조에 팔미도를 돌아드는 범선의 자취와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서, 지역의 대표적 해상 경승지이자 인천팔경의 하나로 알려지기도 함.
- 팔미도는 현재 등대 및 경비 관련 인력만 상주하고 있으며, 일반인은 인천항과 팔미도를 부정기적으로 왕복하는 유람선에 의해 일시적으로 섬에 출입하여 인솔자 인솔하에 팔미도등대, 팔미도등대 역사관, 전망대 등을 관람할 수 있음.
- 팔미도등대는 팔미도의 정상부(해발고도 58m)에 위치하며 행정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로 28 번지에 위치하고, 경위도상으로 동경 126°30' 38", 북위 37°21' 30"에 위치.
- 팔미도등대는 2002년 2월 4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2003년 팔미도등대 인근에 새로운 등대를 신축하였고 2014년 팔미도 선착장 인근에 팔미도등대 역사관을 건립.

4. 연혁 유래 및 특징

<연혁 · 유래>

- 팔미도등대는 그동안 한국 최초의 근대식 등대로 알려졌지만, 1876년 개항 이후 외국 선박의 출입이 빈번해짐에 따라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항로표지가 필요했음에도 팔미도등대가 건설된 1903년까지 근대식 등대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뢰하기에 무리가 있음.
- 팔미도등대가 최초의 근대식 등대라는 견해는 한국등대국삼년보(1907~1909년 발간) 등 일본의 관련기록에 의존한 것으로, 당시 일본이 팔미도등대 건설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성과를 과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팔미도등대 건설 이전인 1893~97년 부산해관의 서신, 1885년 제물포해관의 서신 등에서 당시 등대 부설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확인되므로, 팔미도등대 이전에도 국내에 등대가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이 가능함
- 18세기 중반부터 일본, 청국,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당시 조선 연안에 자주 출몰하였으며, 이들은 서해안 조석 간만의 차와 남해안 다도해의 좁은 수로를 운행하면서 해난사고의 위험에 직면.
- 1876년 강화도조약과 개항 이후 외국 선박의 출입이 증가하면서 선박의 안전항로 확보와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근대식 항로표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조선 정부는 1883년 개항장(인천, 원산, 부산)에 관세, 선박운항, 항로관리, 항로표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해관(海關)을 설치.
- 조선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던 일본은 1883년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체결을 통해 항로표지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1895년 등대 건설을 위해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 연안을 측량하고 건설 대상지를 조사
- 1901년 당시 대한제국 해관 총세무사(總稅務司)였던 존 맥리비 브라운(John Mcleavy Brown, 1835~1920)은 일본의 요청과 계획을 받아들여 팔미도 등 32개소에 등대 건설을 추진
- 1883년 개항 이전부터 한강을 통해 서울로 연결되는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외국 선박의 출입이 빈번하였던 인천항은, 개항 이후 외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의 출입이 더욱 증가.
- 인천항으로 출입하는 선박은 팔미도를 중심으로 좌측(대부도 측) 해역은 수심이 양호한 가항항로이고 우측(용유도 측) 해역은 사주와 얕은 여울이 산재하여 만조 때를 제외하고는 선박 운항이 어렵다는 운항 여건에 직면.
- 1902년 대한제국 해관 총세무사 브라운은 인천항 지나동(현 인천시 선린동)에 인천해관 공사국을 설치하고 등대 건설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인천항 출입항로에 팔미도등대, 소월미도등대(멸실), 북장자서등표(현존), 백암등표(현존) 건설에 착수.
- 팔미도등대는 1902년 3월 건설을 착공하여 1903년 4월 완공하고 1903년 6월 점등하였음을 각종 관련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03년 인근에 새로운 등대가 건설된 이후 등대의 기능과 역할을 중단
-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KLO부대(일명 켈로부대)는 당시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팔미도를 미리 탈취하여 교두보를 마련하고 1950년 9월 15일 새벽 팔미도등대를 점등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개시를 알리고 맥아더 장군의 연합군함대가 인천만으로 안전하게 상륙,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

<특징>

- 팔미도등대는 1895년 등대 건설을 위해 국내 한국 연안과 건설 대상지를 조사하였던 일본 등대전문가 이시바시 아야히코(石橋洵彦, 1853~1932년)가 초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나중에는 브라운이 초청한 영국 기술자 존 레지널드 하딩(John Reginald Harding, 1858~1921년)이 주도적으로 참여.
- 팔미도등대는 1902년 3월 건설을 착공하여 1903년 4월 완공하고 1903년 6월 점등하였으며, 기본적 형식은 전체 높이 7.6m의 등대와 등대 양쪽의 높이 1.8m의 석축 담장에 의해 구성.
- 직경 3.04m, 높이 4.5m의 원통형 등탑(燈塔) 상부에 등롱(燈籠)을 설치하고 등롱 외곽에는 철제 난간이 둘러쳐진 바닥을 설치하였으며, 등탑 내부에는 등롱으로 연결되는 길이 5m, 폭 0.3m의 철제 주물 사다리를 설치
- 등롱은 높이 3.1m, 직경 1.7m 규모의 철제 주물 구조물(영국 찬스형제상회 제작)로 반구형 지붕은 철제 주물, 원통형 벽체는 투명재질로 마감되었으며, 내부 중앙에는 1902 프랑스 ‘바비에 베날사(Barbier, Bénard & Turenne)’에서 제작된 회전식 등명기(燈明器)를 설치.
- 팔미도등대의 구조형식은 과거 관련문서에 연와석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로 기록되어 있고 지정신청서에는 2015년 시료채취 결과에 의한 무근콘크리트 구조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외관에서 벽돌조, 석조, 콘크리트 구조 등의 기법이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태임.
- 외관에서 등탑의 마감 및 벽체 상태는 벽돌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로 추정 가능한 기법을 보이고 있으며, 출입구 주변의 화강석 장식, 화강석 전면 진입계단, 출입구 및 창문 상부의 화강석 인방, 등롱 외곽 외부 난간통로의 화강석 바닥과 테두리 돌출부 등은 석조로도 추정 가능한 기법을 보이고 있음.
- 등탑에 연결되어 높이 1.8m의 석축 담장이 양쪽으로 각각 10.7m, 8.8m 길이로 설치되어 있고 한쪽 담장에는 등탑 가까이 출입구 형식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담장도 등대와 함께 신청 문화재에 포함되어 있음.
- 2002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고 전체적으로 건축 당시의 기본적 건축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등롱 및 등명기의 유지관리 상태도 양호하며, 대한제국기 건조물로서 원형의 보존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팔미도등대 아래쪽 경사지에는 벽돌조, 동판 가락잇기 마감의 박공지붕의 소규모 사무소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팔미도등대와 관련되어 오래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구체적 건축연도가 확인되지 않아 건축이력에 대한 고증 및 조사가 필요함.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팔미도등대가 1902년 3월 건설을 착공하여 1903년 4월 완공하고 1903년 6월 점등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은 다수의 관련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일본 등대전문가 이시바시 아야히코(石橋洵彦, 1853~1932년), 대한제국 총세무사 존 맥리비 브라운(John Mcleavy Brown, 1835~1920), 영국 기술자 존 레지널드 하딩(John Reginald Harding, 1858~1921년) 등 참여자들에 대한 구체적 고증기록도 존재함.

- 현재 등대 지정문화재로는 팔미도 등대 외에 가덕도 등대(부산 유형문화재 제50호, 1909년 건설), 호미곶 등대(경북 기념물 제39호, 1908년 건설), 울진죽변 등대(경북 기념물 제154호, 1919년 건설)의 사례가 있음.
- 현재 등대 국가등록문화재로는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등대(제72호, 1937년 건설), 울산 울기등대 구 등탑(제106호, 1958년 건설), 군산 어청도 등대(제378호, 대한제국기 건설), 해남 구 목포구 등대(제379호, 대한제국기 건설), 신안 소흑산도 등대(제380호, 1935년 건설), 완도 소안면 당사도등대(제731호, 1909년 건설)의 사례가 있음.
- 팔미도등대는 그동안 알려진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현존하는 등대 중 건설연도가 제일 빠르고 가장 오래된 등대로서 역사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
- 팔미도는 인천항의 출입하는 관문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상 오래전부터 해상 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정상부에 위치한 팔미도등대는 1903년 건설 이후 현재까지 그 중심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역할.
- 팔미도는 지리적 장점과 해상교통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서도 역할을 하였으며, 1904년 러일전쟁 제물포해전, 1950년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당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팔미도등대는 대한제국 시기 1902년 인천해관 공사국에 의해 소월미도등대(멸실), 북장자서등표(현존), 백암등표(현존)와 함께 건설되었으며, 오래전에 건설되었음에도 등탑, 등룽, 등명기 등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재로서의 보존, 관리여건도 양호
- 이상과 같이 팔미도등대는 현존하는 등대 중 가장 오래된 등대로서 대한제국부터 근대기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성, 상징성, 대표성, 지역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련기록을 통해 연혁을 확인할 수 있고 원형의 보존관리 상태도 양호하므로, 사적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명칭	시대 연대	구조 형식 형태	토지면적	용 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인천 팔미도 등대	1903	콘크리 트 구조 (추정)	920㎡	등 대	인천광 역시 중구 무의동 산373	해양 수산 부	세종특별자 치시 다솜2로 94, 5동	인천지 방해양 수산청	인천광역 시 중구 서해대로 365-1
			11.7㎡						
			1동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현재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고 보존, 관리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고시되어 있으며, 사적 지정시에도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0.5.21(목)	대상 문화재	인천시 중구 무의동 산373번지 소재 팔미도 등대	
조 사 자	성 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	○○○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팔미도(구)등대		
	③입지 현황 및 역사 문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에서 남쪽 15.7km 떨어진 • (구)등대 인근 (구)등대사무소(옛 사무동), 팔미도등대역사관(2014) 및 군부대, (신)등대와 직원숙소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0호 지정(2002.02.04.) • 현충시설로 지정(국가보훈처 고시 제2013-10호). 		
	④연혁·유래 및 특징	1903. 4. 완공 1903. 6. 점등 1950. 10. 인천상륙작전 지원 2002.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 2004. 등대 기능 신등대로 이전 2016. 5. 등탑보수정비 2017. 5. 돌담보수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최초의 등대(1903년 건축, 사적지정기준 제1호 나목) 6.25 전쟁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기여(사적지정기준 제1호 다목)		
	⑥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등대 1동(면적 11.67㎡) 돌담 1식/길이 각 8.8m, 10.659 m/ 높이 1.8m, 두께 0.8m		
		<보호구역> 인천시 중구 무의동 산 373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제안한 활용방안: 팔미도 등대마을-팔미도(구)등대, 팔미도(신)등대, 팔미도역사관, 팔미도(구)등대사무소, 산책로 등의 물리적 요소를 정비, 연결.		
종합의견	팔미도 등대는 한국 최초의 등대이자 최초의 콘크리트 축조물 및 최초로 근대 광학기구를 사용한 중요한 유물로 현재 그 원형이 비교적 남아있으므로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제출자 : ○○○				
문화재청장 귀하				

팔미도등대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별첨자료)

I 최초의 등대 : 팔미도 등대

1. 등대

1) 개관

- 가. 해발고도 71m 섬 정상에 세워진 높이 7.9m, 지름 3.04m의 원형 콘크리트 축조의 등대
- 나. 1903년 4월 완공, 6월 점등
- 다. 불빛 10km 밖에서 볼 수 있는 6등급 프레넬렌즈의 등명기 설치
- 라. 점등 시부터 유인 등대{전국 38개의 유인 등대(2018년 해양수산부) 중 하나. 인천 관할의 유인등대 4기 중 하나}-숙소, 사무동
- 마. 인근 등대의 원료 공급을 위한 창고 등이 마련
- 바. 등탑 보호를 위한 석조 돌담- 최근 정비

2) 연혁

가. 대한제국 최초로 세워진 등대

- 1903년 대한제국 정부의 경비로 세워진 일본 상선과 군함 등 선박 운항을 위한 등대
- 특징 : 인천 팔미도 지리적 특성에 의해 일본이 등대 입지로 처음 설정
 - 1894년 6월~9월 연안 등대건설관련 조사와 측량 결과 가장 먼저 선택된 곳임
 - 팔미도 부근은 항로 폭이 좁고 수심이 얕으며
 - 큰 조석 간만의 차, 강한 조류
 - 인천항 진·출입 항로 중앙 위치
 - 팔미도를 중심으로 대형 선박은 비교적 수심이 양호한 좌측 항로, 소형 선박은 사주(沙柱)와 얕은 여울의 우측 항로 이용.
 - 해역 여건으로 1897년부터 팔미도 서단에 항로표지를 설치 운영
 - 일본과 서구 여러 나라의 항로표지설치 요구로 1902년 5월부터 팔미도 정상에 콘크리트 등탑 건립, 1903년 3월 완공, 6월 1일 점등
 - 1955년의 국제연합 한국부흥단(UNKRA)의 원조 복구계획에 힘입어 등대영조물, 발동발전기, 전기시설, 등대 보급선 등의 복구계획이 추진
 - 1960년대 국제협조기구(FOA)의 자금으로 현대식 등대로 전환.
- 건축 과정
 - 1901년 12월(메이지 34년) 일본의 체신기사 이시바시 아야히코(石橋絢彦)가 한국정부의 초빙으로 파견되어 등대 건설에 착수
 - 당시 총 세무사 브라운(J.M. Brown)이 1902년 3월에 인천항 청국조계지(일제강점기 이후 지나정(支那町)으로 명칭 변경)에 해관등대국 설치
 - 이시바시 아야히코 병으로 귀국('회고 기사'에서 소월미도 등대를 자신이 설치한 최초의 근대 등대로 언급)
 - 1903년 3월에 요코하나 관리소 기사 아오야마(青山) 초빙. 그 역시 병으로 약 9개월 만에 해약 후 귀국
 - 1903년 총세무사 브라운, 상해 등대국 기사인 영국인 존 레지널드 하딩(John Reginald Harding, 哈爾定)에게 등대 건설 사무 일체 촉탁, 등대사업 설계 담당.
 - 석조로 계획. 축조 과정에서 돌 운반의 어려움과 비용의 문제로 포기, 콘크리트 축조 방식으로 변경(1902년 10월 7일 자 영국 부영사관 팩스(H. H. Fox)의 보고서 3항. by Acting Vice-Consul H. H. Fox)

- 콘크리트 축조 방식은 거푸집을 만들어 한 번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방식이 아니라 250mm 높이로 한 단씩 콘크리트를 나누어 부어 올리는 방식으로 축조 (cf 1. 『한국등대일람표』(1907)에 의하면 연와석조로 기록됨. 2. 『등대항로표지관리소 기록』(1910)에는 콘크리트로 기록)
- 백색 도장
- 등탑 내부: 가는 모래 이용한 모르타르 미장
- 등탑 출입구 좌·우측에는 화강석 기단, 목재여단이 출입문 설치
- 등롱으로 오르기 위한 철제 사다리 설치
- 유인 등대로 등대원의 숙소와 유류저장 창고 건축



팔미도 등대 전경



등탑 내 애자(페인트로 덧칠됨).

- 현재
 - 200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 40호
 - 2003년 새로 건축된 신등대 등대 기능 이전
 - 2004년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유산
 - 2009년 보수 및 원형복구. 일반 공개
 - 2016년 등탑 보수 정비(금속안정화 처리, 균열부 충전, 건습식 세척, 창호보수)
 - 등탑 2016년 보수공사(등탑 내 전기 설비용 애자가 페인트칠로 원형 손상)
 - 등탑 보수 이후 부식 상황-2016년 수리에도 불구하고 도장의 문제로 부식이 진행됨

2. 등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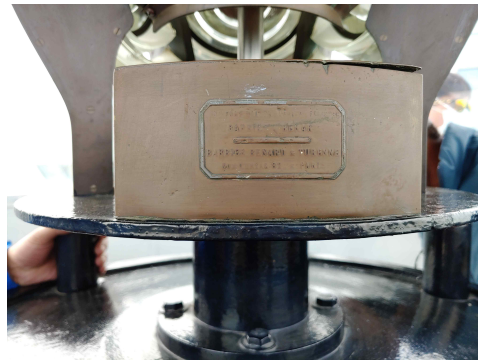
1) 렌즈 및 전구

- 1902년 프랑스 바비엘 베날사 제작의 3면 렌즈의 6등급 프레넬 렌즈(재질: 유리)
 - Barbier, Benard, et Turenne (BBT):1862년 설립, 프레넬렌즈를 이용한 등명기 제작에서 선두 기업, 1982년 해체)
 - 렌즈는 유리를 가공해 3면(3섬광을 발하기 위함)으로 제작
 - 1면의 렌즈는 빛을 발산하는 중앙렌즈(1개)와 빛을 모으는 볼록렌즈(6개)로 구성
- 등불은 세 개 백색 점멸등, 점멸주기 8초로 3회 24초 주기로 16초 간격. 한 회 회전 주기 40초.

- 광원: 초기 석유등 백열등에서 1954년 자가발전 설비 조성으로 백열전구등 250W(후 500W)로, 1967년 수은등, 1981년 할로겐으로 교체
- 1962년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 광력: 초기 90축광 백색광(현재 5만 축광)
- 광달거리: 20해리



등탑에 부착된 등명기 제작사 패널



등명기 제작사

- ※ 프레넬 렌즈는 프랑스 물리학자 Augustin-Jean Fresnel이 등대를 위해 개발한 복합 콤팩트 렌즈로 100만 배를 구한 발명품으로 불림
- 볼록렌즈에서 사선을 없애
 - 볼록렌즈의 기능은 그대로 간직한 렌즈 빛의 파동성에 의한 간섭현상을 최대한 제거하고 빛을 굴절시키고 확대하는 방식의 렌즈
 - 작은 에너지로도 강력한 빛을 형성
 - 같은 광도의 빛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렌즈 여러 겹을 배치해야 하므로 두껍고 무거워지는 렌즈의 문제로 구성이 불가능
 - 프레넬이 렌즈의 면을 동심원 고리로 나누는 조르주 드 뷔퐁(1748)의 아이디어를 1820년에 실제 렌즈에 채용해 얇고 가볍고 커다란 렌즈 제작에 성공.



등명기 3면 중 한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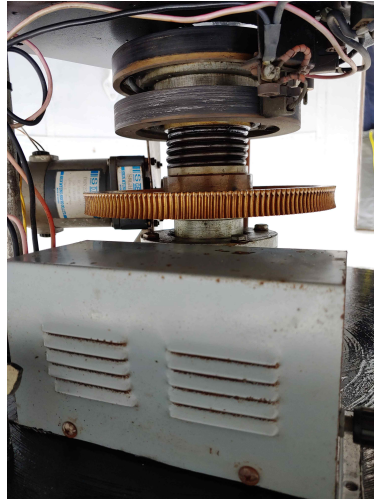
2) 회전기

- 부력이 강한 수은 위에 등명기를 띄운 수은조식(水銀槽式)였을 것으로 추측됨 (1897년 프랑스 개발, 1904년 이래 가동된 등명기 대부분이 이 프랑스 바비엘 베넬사의 수은조식 회전기를 채택

- 부력이 큰 수은이 가득 든 통에 등명기렌즈대를 띄우고 와이어로프에 매단 추가 내려오면서 회전(예: 소청도 등대, 속초 등대)
- 1903년 설치된 팔미도 등대의 등명기가 수은조식이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음
- 1930년대 일본에서 이를 대체하는 모방품이 개발, 이후 등명기들은 대개 이를 채택했으나 팔미도 등대의 채택 여부는 알 수 없음
- 1954년 9월 자가발전 시설 구비해 전기 동력의 회전기로 대체-대체전 회전기 원형은 찾을 수 없음
- 현재 회전기와 모터는 1986년 교체된 것임(장비이력에는 1985년으로 되어 있으나 회전기 패널에는 1986년으로 새겨짐)



회전기 패널에 새겨진 제작 연도



1985년 교체된 회전기



회전기 모터

3) 등롱

- 영국 찬스형제상회 철재 주물: 등명기 보호 목적, 분해 조립이 가능.
- 높이 3.17m, 직경 1.7m
- 반구형 돔형
- 광원 부분: 유리(높이 0.55m, 직경 1.70m)
- 등롱 상부 피뢰침과 풍향계 설치



팔미도 등대 등롱

등롱 부식 상황

- 현재: 비상용으로 가동-신등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사용하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

3. 기타 부속 시설

1) 돌담



등대 보호 돌담

- 등대 양쪽의 구조물:길이 각각 8.8m, 10.66m. 두께 0.8m, 높이 1.8m
- 팔미도 등대 축조 함께 축조되었다고 하지만 그 원형을 알 수 없음
- 2017년 5월 보수(페인트 제거, 건습식 세척, 줄눈보수, 페인트 도포)

2) 옛 사무동

- 1903년 건축되어 1962년 사무동이 새로 지어질 때까지 등대원 숙소 및 등대 사무실 사용.
- 박공 지붕 형태의 단층 건물, 좌우 벽면에 각각 2개, 뒷 면에 각 1개의 오르내림창.
- 내부 천정과 바닥: 목재마루 널로 구성
- 1960년대 후반, 군인 교회로 사용
- 2003년 수리 정비 이후 전시실로 사용



등대원 숙소 로 쓰였던 옛 사무동 전면



사무동 측면

II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팔미도 등대○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등대

- 인천상륙작전과 팔미도 등대
- 6·25 전쟁으로 팔미도에서 후퇴 (식량난으로 도저히 등대 생활이 곤란하여 일시 철수 :정순중, 「등대원의 일기」 (2003)

- 후퇴 시 ‘점등 불능’으로 상태 전환
- 유엔군 총사령부, 9월 15일 0시 팔미도등대 점등 전문 하달
- 팔미도 탈환 작전{KLO(Korea Liaison Office; 미 극동군 사령부 주한 연락처)}-9월 15일 이전 두 차례 교전(밤에는 KLO, 낮에는 북한군 점령), 9월 14일 야간 공격으로 장악.
- 1950년 9월 15일 0시 15분 점등으로 인천상륙작전이 개시
- 등명기 점등 불능 상태 : KLO 대원의 신화(“땅바닥에서 우연히 노즐을 찾아 끼웠다”)
- 해군의 요청으로 등대원이 팔미도로 돌아와 석유램프를 켜고 가성소다 등 재료가 없어 등명기를 손으로 직접 회전했다고 회고
- 이런 역사적 현장임을 기려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지정(현충시설, 관리번호 14-2-36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3-10호))

Ⅲ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등대는 대한제국기에 지어진 최초의 등대
- 콘크리트를 이용한 축조물임
- 100여 년 동안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 담당
- 동력 전환 단계마다 회전 기계의 변천사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들이 존재하며
- 인천상륙작전이라는 6.25 전쟁 국면 전환을 도모하는 군사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님.
- 사적지정기준 제1호 나목과 다목을 모두 충족함
- 보호물로 구사무동(비록 원형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함-이는 팔미도 등대가 유인 등대였고 100년 역사의 현장으로서 중요한 흔적을 가지기 때문임

Ⅳ 참고자료

- 김종현, “대한제국의 등대건축에 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21권 6호(통권200호) 2005.06
- 등대문화유산(가덕도 팔미도등대) 종합조사 연구용역(2019)
- 해상용 등명기(750mm 회전식)표준규격서[제2012-502호, 국토해양부, 2012.04.]
- 국립등대박물관 <https://www.lighthouse-museum.or.kr/kr/sub.jsp?code=H04050000>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0.5.21.(목)	대상 문화재	팔미도 등대	
조사자	성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	○○○○○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 종별	등대
	②문화재 명칭	(구)팔미도 등대
	③입지 현황 및 역사 문화환경	인천항에서 남쪽으로 15.7km 떨어진 작은 섬 팔미도에 우뚝 솟아 있는 팔미도등대는 인천항 진입항로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입·출항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지표 역할을 함. 새로운 팔미도등대가 2003년 12월 건립되기 전까지 100년간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금은 인천시유형문화재(제40호)로 지정·보존되고 있음. (구) 팔미도등대는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음.
	④연혁·유래 및 특징	인천항 입구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1902년 3월 인천 중구 선린동에 설치된 인천해관 공사부 등대국이 1902년 5월에 착수하여 1903년 4월에 준공한 근대식 등대이며, 6.25전쟁시 인천상륙작전시 유엔 해군함정의 수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안내하여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903년 건립된 국내 최초의 유인등대라는 상징성(사적지정기준 제1호나목)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한 역사적 사건과의 연관성(제1호다목)
	⑥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구)팔미도 등대 1동(면적 11.87㎡ / 높이 7.9m) 및 돌담(돌담 1식 / 길이 각 8.8m, 10.659m / 높이 1.8m / 두께 0.8m) <보호구역> 무의동 산373 임야 920㎡(1필지)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등대와 군 시설만 있고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팔미도는 2003년부터 유람선만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음. 하선한 관람객들은 가이드 인솔하에 이동하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한 등대의 훼손 우려는 거의 없음.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팔미도등대에 등대원이 상주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건조물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임.
종합의견		사적으로 지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제출자 : ○○○

문화재청장 귀하

팔미도등대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별첨자료)

- (구)팔미도 등대는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선 유엔군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등대였음. 유엔군은 팔미도에서 인천상륙을 위해 월미도 및 인천항 등으로 향하는 상륙전 함대들의 수로를 안내하기 위해 팔미도 등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 상륙작전시 수로를 안내하여 크게 기여하였음.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미 극동군사령부에서는 1950년 8월 26일 덕적도, 영흥도, 팔미도 일대 등 정확한 적정과 해안정보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위해 특수요원의 침투를 계획했음.
- 그러나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임무에 비추어 책임자가 흔치 않았으나, 다행히 클라크 대위가 추천되었음. 그는 극동군사령부 안에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그는 태평양전쟁 시기 호주, 필리핀, 오키나와 등을 거쳐 수많은 남태평양전선에 참가하였고, 항해, 통신, 포술 등 대전 이후의 다양한 함상 근무경력뿐만 아니라 병조장이 되기까지 오랜 사병경력도 소지하고 있었음. 그가 8월 26일 정보수집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자 서해지구 책임자인 앤드류스 소장의 주선으로 2명의 한국인 통역과 함께 영국해군 구축함 웨리티호와 한국 해군함정 PC703함과 함께 9월 1일 영흥도와 팔미도에 도착하였고, 주민들의 우호적인 협조를 받으면서 정보수집에 착수하게 됨.
- 특히 그는 당시 작동하지 않고 있던 팔미도 등대의 항해등을 점화하여 아군함선들이 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였고, 적이 아군의 상륙작전을 예상하고 있는지 혹은 방어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정보수집을 수행하여 인천상륙작전을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9월 15일 새벽 유엔해군 상륙부대는 클라크 대위가 복구한 팔미도 등대의 휘황한 불빛으로 수로 진입을 인도하여 무난히 진입하는데 성공하였음.
- 팔미도 등대는 6.25전쟁의 국면을 일시에 뒤바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소중한 문화 자산임. 따라서 (구)팔미도 등대는 6.25전쟁 관련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평가됨.

3.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9.18.)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0.6.29.)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구광역시 교육감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28(동인동 4가)
 - 소유자 : 대구광역시 교육청
 - 수량 : 1동
 - 건축면적 : 669.26㎡(건축물대장)
 - 연면적 : 713.66㎡(강당 669.26㎡, 영사실 44.4㎡)
 - 건립시기 : 1935~1937년 추정
 - 구조 :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6.25) : 근현대 교육시설 문화재 등록 신청 권고(문화재청)
 - ('18.9.18.)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 ('20.6.29.)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6.29.)

- 동인초등학교 강당은 최초 건축 이후 몇 차례 증축, 개보수되며 내외부가 변형되었지만 최초 건축 부분과 1957년 증축 부분은 벽체, 지붕, 텐털 장식 등 외관의 기본적 형태와 구성요소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건축적 의미와 가치뿐만 아니라 대구 구 도심에서 오래된 학교시설로서 근대기 도시공간 구조와 변화를 보여주는 도시사적, 교육사적, 지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지니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 ○ ○ ('20.6.29.)

- 동 강당은 동인초등학교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사로서, 최초 개교 당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상징성 및 역사성이 있음. 또한, 강당으로서의 필요한 층고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한 만사드지붕은 당시 건축적 수법 등이 비교적 잘 반영된 것으로 건축사적 측면에서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원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건축적 수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매우 유사한 건축적 양식과 수법을 보이는 인근의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이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한 채로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 ○ ('20.6.29.)

- 소학교 강당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에 장대하고 고급스러운 처리로 보아 학교나 강당의 위상이 꽤 높았던 듯하다. 증축으로 인해 남쪽 외벽은 철거되었고 출입문·지붕·내부 등에 걸쳐 여러차례 수리과정에서 광범위한 변형이 있었으나, 외벽·캐노피·창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지붕틀 역시 증축으로 인한 변형은 있지만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내부는 원형을 거의 잃었다. 1957년 증축부는 1960년대 일제강점기 지어진 학교 강당의 활용 방식을 보여 주고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2017년 추가 증축이 있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강당의 실질적인 외관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본 강당은 유형문화재인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과 매우 유사한 점이 독특하고, 식민지기 대구부의 도시성장 및 사회사와 연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에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건축적·역사적·사회적 가치를 보존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구) 대구 동인국민학교 강당,
(구) 대구 동운정공립심상소학교 강당
2. 용 도 : (현) 교육시설 (강당) (원) 교육시설 (강당)
3.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28 (동인동 4가)
4. 소유자 : 대구광역시교육청(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5. 건축물 개요

- 준공일 : 1935~1937년(추정), 1956년 6월 1일(재산대장 기록)
- 건축구조 : 벽체) 철근콘크리트·벽돌혼용조
(기초) 철근콘크리트 줄기초(추정)
(바닥) 철근콘크리트 위 목재마루 깔기(추정)
※ 원형은 동바리 마루틀 위 장마루깔기로 추정
(벽체) 하부(바닥~창대높이) 무근콘크리트조(추정)
상부: 붉은벽돌 조적조
(테두리보, 북쪽 박공면, 캐노피) 철근콘크리트조
지붕틀) 목재 지붕틀(만사드 트러스로 추정)¹⁾
-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713.66㎡ (강당 669.26㎡, 영사실 44.4㎡)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실측평면도(2018) 자료
원형	약 396㎡	약 396㎡	-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실측평면도(2018) ²⁾ ※1957년 증축부 2층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모두 포함
1957년 증축부	약 182㎡	약 226㎡		
2017년 증축부	약 92㎡	약 92㎡		
합계	약 670㎡	약 714㎡		
1987.1.1.~2002.1.1	-	748.4㎡	-	-대구동인초등학교 재산대장 -(대구)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보고서(2004) : 748㎡로 표시 -근현대교육시설 일제조사 연구보고서(2017) : 748.00㎡로 표시
2017년 증축 이전	-	577.56㎡	17,245.21㎡	-일반건축물대장(발급일2018.8.13.)
2018.7.16. (증축통보일) 이후	-	669.26㎡	17,178.1㎡	-토지대장(발급일2018.8.13.)
	-	713.66㎡	-	-등록문화재신청서

- 층수(높이) : 원형) 지상1층,
1957년 증축부) 일부 지상2층, 일부 지상1층
2017년 증축부) 지상1층

1) 구조 추정 부분은 본 강당과 매우 유사한 형태·크기의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의 정밀실측조사보고서(2010,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에 따른 것임.
2)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실측평면도>(2018) 치수로 계산한 값.

6. 조사자 의견('20.6.29.)

<○○○>

1) 개요

- 현재 대구 동인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는 본래 대구읍성이 있었던 지역으로 1906년 대구읍성이 철거된 이후 전통적 도시구조에서 근대적 도시구조로 점차 변화
- 대구 중구는 과거 읍성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근대 건축물이 건축되며 시가지가 점차 확장되었으며, 현재도 대구의 원도심이자 구시가지 지역으로 다수의 근대건축물이 현존
- 대구 중구의 현존 근대건축물로는 사적으로 대구 계산동성당, 구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독립대구병원, 대구 유형문화재로 선교사스윗즈주택, 선교사챔니스주택, 선교사블레이어주택, 성모당, 대구제일교회, 샬트르성바로수녀원성당, 남산초등학교강당, 계성학교아담스관, 계성학교맥퍼슨관, 계성학교헨더슨관, 구대구상업학교본관, 한국산업은행대구지점, 문화재자료로 성유스티노신학교, 샬트르성바로수녀원코미넛관이 대표적 사례.
- 이외에도 대구 중구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구대구사범학교 본관과 강당, 대구동산병원 구관, 대구화교협회, 대구 구 교남YMCA회관, 대구 삼덕초등학교 구 관사가 현존
- 현재 대구 동인초등학교가 위치한 중구 동인동은 일제강점기 당시 동운정(東雲町)이라 지칭되었으며, 구 대구읍성 인근 동쪽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시가지를 형성하며 대구부청(大邱府廳) 등 각종 관공서와 학교가 건축되었고 일본인 주거지를 형성
- 대구 동인초등학교는 1935년 동운정공립심상소학교로 개교되었으며, 이후 1945년 동운국민학교, 1946년 동신국민학교, 1949년 동인국민학교로, 1996년 동인초등학교로 각각 교명을 변경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대구 동인초등학교는 1935년 4월 1일 개교 후 교사 대부분의 건물이 최초 건축된 이후 그동안 철거, 신축, 증축되었으며, 현재 오래된 역사적 건물로는 강당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상태.
- 현재 강당은 최초 건축시기 관련 일부 고증자료가 상호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신축연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강당이 표현된 가장 이른 시기의 고증자료에 의해 1937년 이전으로 추정 가능함
- '조선총독부제작 일만분의일조선지형도집성(柏書房株式會社 1985년 발행)' 내용 중 '昭和12(1937)年修正測圖 大邱1' 도면에서 현재 동인초등학교 위치에 '小學校'로 표현되고 현재 강당 위치에 강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그려져 있어 동인초등학교 강당은 1937년 이전에 신축된 것으로 확인 가능함
- 학교측의 '재산대장'에 의하면 강당은 1956년 6월 1일에 연와조, 스투트 지붕, 건축면적 및 연면적 124.1평 규모로 신축되었고 1964년 6월 30일에 보존등기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1954년 항공사진에도 현재 강당이 증축 이전 규모로 나타나 있어 '재산대장'의 기록은 오류로 판단됨

- 따라서 강당 신축 시기는 1937년 이전으로 확인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인초등학교가 1935년 4월 1일 개교되었으므로 1935년부터 1937년 사이에 신축된 것으로 확인 가능함
- 학교측 ‘연혁지’에 1957년 증축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증축관련 세부기록은 없으며, 당시 강당 내부의 무대 반대편 2 Span 부분과 2층 규모의 영사실 부분이 증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증축 부분 외관이 1960년대 고증사진에도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학교측 ‘연혁지’에 1971년 중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중수관련 세부 내용은 없으며, 당시 개방적 구조의 2층 규모 영사실 부분이 외벽으로 막히고 내부 개보수는 등의 중수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현재 화장실, 샤워실, 창고 등으로 구성된 1층 규모의 목재비늘판벽 부분이 증축되었으며, 이와 같은 증축 내용은 현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에 의해서 명확하게 확인됨
- 강당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장방형 평면, 적벽돌 벽체, 수직적 형태 창문, 목조트러스 지붕틀, 맨사드 지붕이고 지붕처마 아래의 연속적 덴틸(Dentil) 장식이 특징적 요소이며, 현재는 최초 건축된 부분과 1957년 증축된 부분이 연결되며 서로 다른 형식의 입면과 비정형적 맨사드 지붕을 형성
- 내부에서 특징적 부분은 무대로 본래 벽면에서 무대바닥만 돌출된 개방적 형식이었고 후면 벽면을 반원형 붙임기둥(Pilaster) 2개 등에 의해 장식하였으나, 현재는 프로시니엄(Proscenium) 형식으로 변형된 상태
- 1937년 ‘조선총독부제작 일만분의일조선지형도집성’ 내용중 昭和12(1937)年修正測圖 大邱1 도면에 표현된 강당 배치도와 과거 사진에 의하면 현재 무대 측면 부속실 외벽의 출입구는 현재는 철거된 구 본관과 연결된 통로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최초 건축 이후 몇 차례 증축, 개보수되며 내외부가 변형되었지만 1935~1937년 최초 건축 부분과 1957년 증축 부분은 벽체, 지붕, 덴틸 장식 등 외관의 기본적 형태와 구성요소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음
- 일제강점기 당시 적벽돌 벽체와 맨사드 지붕을 기본으로 하였던 일반적 강당 건축형식으로 건축되었으며, 전체적 건축형식은 인근에 위치한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1936년 건축, 대구 유형문화재 제44호)과 매우 유사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신축 이후 몇 차례 증축, 개보수를 거치며 내외부가 변형되었지만, 현재까지 학교 강당으로 사용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었으므로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훼손된 부분이 없이 전체적인 보존, 관리 상태는 양호함
- 강당 외관에서는 벽돌 조적조 외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지붕처마감재는 스테이트에서 금속지붕으로, 창호는 목재에서 알루미늄으로 각각 변경되었고 출입구 부분에 캐노피(Canopy) 구조물을 설치
- 강당 내부에서는 무대가 본래 벽면에서 돌출된 개방형식이었으나 현재는 프로시니엄 형식으로 변경되었고 천장은 본래 천장마감 아래 현재의 천장마감이 추가로 설치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동인초등학교는 대구광역시 구도심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주변이 변화하고 복잡하지만 학교의 특성상 넓은 부지를 형성하고 강당 등 건물 주변에 운동장 등 넓은 외부공간(Open Space)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학교측에서는 학교 오랜 역사의 유일한 현존 흔적으로서 보존하고자 하므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강당은 그동안 탁구 연습장 용도 위주로 사용되어왔으며, 학교측에서는 현재의 활용형식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고 새로운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학교 강당 지정문화재로는 남산초등학교 강당(대구 유형문화재 제44호), 부강초등학교 강당(세종 유형문화재 제5호),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소강당(광주 문화재자료 제27호), 대전여중 강당(대전 문화재자료 제46호) 등의 사례가 있음
- 현재 학교 강당 국가등록문화재로는 구대구사범학교 본관과 강당,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 전주 신흥고등학교 강당과 본관 포치,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 흥성고등학교 강당, 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 청주 대성여자중학교 강당,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등의 사례가 있음
- 동인초등학교 강당은 최초 건축 이후 몇 차례 증축, 개보수되며 변형되었지만 최초 건축 부분은 전체적 건축형식이 인근에 위치한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1936년 건축, 대구 유형문화재 제44호)과 매우 유사

7) 등록가치의견

- 동인초등학교 강당은 1935~1937년 최초 건축되고 1957년 증축되어 현재의 기본적 공간과 형태를 구성하였으며, 기본적 건축형식은 장방형 평면, 적벽돌 벽체, 수직적 형태 창문, 목조트러스 지붕틀, 맨사드 지붕이고 지붕처마 아래의 연속적 덴틸(Dentil) 장식이 특징적 요소
- 동인초등학교 강당은 최초 건축 이후 몇 차례 증축, 개보수되며 내외부가 변형되었지만 최초 건축 부분과 1957년 증축 부분은 벽체, 지붕, 덴틸 장식 등 외관의 기본적 형태와 구성요소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
- 이상과 같은 건축적 의미와 가치뿐만 아니라 대구 구 도심에서 오래된 학교시설로서 근대기 도시공간 구조와 변화를 보여주는 도시사적, 교육사적, 지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지니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현재 학교명을 따라서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또는 신축 당시의 학교명을 따라서 '대구 동운정공립심상소학교 강당' (국가등록문화재 제30호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사례 참조)
- 현재 1층 규모로 목재비늘판벽으로 마감된 부분은 등록시 등록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보존, 원형복원, 경관 등을 위해 철거되는 것이 바람직함

1) 개요

- 오늘날 ‘대구 동인초등학교’는 최초 1935년 4월 1일 ‘일본 동운소학교’로 시작하여, 해방 후 1945년 11월 8일에 ‘대구 동운공립국민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그해 12월 5일 개교하였음.
- 또한, 여러 차례의 교명도 변경되었는데, ‘대구 동신국민학교(1946년 7월 2일)’, ‘대구 동인국민학교(1949년 8월 23일)’ 등을 거쳐 1996년 3월 1일 오늘날의 교명인 ‘대구 동인초등학교’로 최종 확정되었음.
- 이번 등록 신청한 강당 건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축적 내력이 없어 최초 건립 년대를 알 수 없으나, 관련자료(위성 및 기록사진 등)에 따르면 1954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 측에서 제출한 건축물 등기부에는 최초 건립을 195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등기부에 등재된 당시의 기록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근에 위치한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4호, 2003년 지정)’ 건물이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과 매우 유사한 건축양식과 수법 등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개교 시점(1935년~1936년)에 맞춰 1936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의 경우에도, 개교 시점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때, 1935년~1936년 사이에 최초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향후, 자료 보완 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 이밖에, 최초 개교 당시 교사(校舍) 건립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최초 본관과 강당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별관(1954년~1957년 추정)과 신관(1967년) 건물이 추가적으로 준공되었던 것으로 보임. 현재는 이들 건물 중 본관(1985년 철거), 별관(1986년 철거) 건물은 철거된 상태이고 강당과 신관만이 남아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지상1층, 정면39.5m×측면14.8m 규모의 장방형 평면의 조적조(붉은벽돌) 건물로 지붕은 만사드지붕으로 비교적 높게 처리하여, 강당으로서의 필요한 층고를 충분히 확보하였음. 내부는 하나의 통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측 단변부 쪽에 무대를 설치하였음.
- 입면은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하였는데, 기단에서 창대석까지는 조적벽체 위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그 위에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여 석조의 이미지를 주었으며, 측부에는 수직방향의 세장한 창호를 규칙으로 설치하여 수직성을 강조하였고, 지붕 아래의 코니스 부분은 텐털장식으로 처리하였음.
- 무대 뒤쪽으로는 외벽면을 돌출시켜 단조로운 입면구성에 변화를 주었고, 좌·우 대칭되는 곳에 보조 출입문을 설치하였는데 상부에는 캐노피를 두고 그 양쪽 아래에는 까치발로 지지하게 하였음.
- 지붕 가구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조사 당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제출한 일부 사진자료에 따르면 목조트러스 골조가 보이지만 구체적인 만사드지붕 구조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없었음.

- 관련 항공사진(1954년 촬영) 자료에 의하면, 정면 우측 외벽면에 일종의 복도용 건물이 본관 건물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날에도 이 위치에 박공형 캐노피와 함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벽면에는 과거 복도용 건물의 지붕마감선(후레싱)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됨.
- 최초 건립 당시 강당은 정면과 배면 중앙부에 높게 세운 조적 굴뚝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입면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 상태의 남측 입면과 상부 지붕형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이 부분에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즉, 비슷한 건축양식 및 기법 등을 보이는 인근의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과 비교해 보면, 남쪽 측면으로 일부 증·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교연혁지’에 따르면 실제로 1957년 10월 31일에 강당 증축 공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증축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기록사진 등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강당 내부의 무대 반대편 쪽으로 일부 공간(중2층 규모의 스탠드 시설로 추정)이 확장되었고, 또한 확장된 외벽면에 콘크리트구조의 계단실을 달아내어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임.
- 다만, 상술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남측면 상부의 지붕 형태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1954년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좌·우측 지붕 박공면이 이미 대칭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함.
- 이와 함께, 1971년 2월 15일에는 한 차례의 중수 공사가 있었는데, 이때 콘크리트 구조의 계단실 일부 공간을 영사실(관계자 증언)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강당 내부에 설치하였던 중2층 규모의 스탠드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추정됨.
- 이밖에, 1986년 지붕개량 공사, 1993년 누수 보수 공사, 1995년 바닥 및 벽, 천정 일부 보수 공사, 2007년 출입문 교체, 2012년 바닥 도장 공사, 2017년 리모델링(바닥교체, 무대 및 벽면, 냉난방기) 및 부대시설 증축(체육창고, 샤워장, 화장실, 연구실)공사를 진행하였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립 당시 작성된 도면 또는, 건물의 전반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사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원형보존 상태 및 변형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음. 다만, 일부 공간이 증·개축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 구조체에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현재도 다목적 강당 등으로 계속해서 사용 중에 있어, 적기에 수리 및 보수 등이 이루어져 보존 및 관리에 따른 노후화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학교 측에서는 현존하는 교사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역사적 산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향후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 우려는 적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에도 다목적 강당의 기능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현재의 사용되는 기능과 함께 근대기 교육 시설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학교 교사 건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전국에 걸쳐 다수 있으며, 특히 이번 등록 신청한 동인초등학교 강당과 매우 유사한 건축양식과 수법 등을 보이고 있는 사례인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4호, 2003년 지정)’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단, 남산초등학교 강당의 경우에는 주변 도로 편입 문제로 2011년 이건(移建) 공사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복원공사를 통해 원형을 회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동 강당은 동인초등학교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사로서, 최초 개교 당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상징성 및 역사성이 있음. 또한, 강당으로서의 필요한 충고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한 만사드지붕은 당시 건축적 수법 등이 비교적 잘 반영된 것으로 건축사적 측면에서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원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건축적 수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매우 유사한 건축적 양식과 수법을 보이는 인근의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이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한 채로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대구 동인초등학교 구 강당」

<○○○>

1) 개요

<학교연혁>

- 강당이 있는 학교는 「조선총독부 경상북도고시」 제68호로 1935년 5월 27일 당시 주소 ‘대구 동운정 410번지의3’ 위치에 ‘대구동운정(東雲町)공립심상소학교’라는 명칭으로 설립 인가되었다.³⁾ 이 위치는 일제강점기 대구부 시가지의 동쪽에 치우쳐 있고, 가까이에 독립병원, 의학전문학교, 세무서, 조선제사장 등이 있었다. 학교에는 일본인 관료나 군인의 자녀들이 많이 다녔고 일부 권력층 한국인 자녀들도 다녔다고 한다. 교지 북쪽에 서쪽 시가지 중심부와 연결되는 동서방향 대로가 위치하여 학교 정문은 이 대로 쪽으로 교지 북측에 나 있다.

3) 『조선총독부관보』 제2525호 소1935.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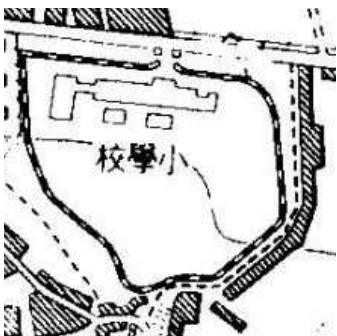
- 개교일은 1935년 4월 1일이며⁴⁾ 1941년 4월 1일 ‘동운(東雲)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1930년대 후반 이 학교는 대구 본정(本町)공립심상소학교와 함께 일제강점기 대구부에 소재한 일본인용 공립 초등교육기관 2개 중 하나, 1940년대에는 4개(육(旭), 본정(本町), 봉산(鳳山町), 동운정(東雲町)) 중 하나였다.
- 해방 이후 1945년 12월 5일 일제강점기 학교재산을 인수하여 공립 대구 동운(東雲)국민학교로 개교하였고, 1946년 7월 2일 동신(東新)국민학교로, 1949년 8월 23일 동인(東仁)국민학교로, 1996년 3월 1일 동인(東仁)초등학교로 각각 교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른다.

<강당 신축시기>

- 강당은 신축시기는 개교 이듬해이자 본관 낙성식(1936.6.14.) 즈음인 1936년 6월 ~ 1937년 사이로 추정된다.⁵⁾ 1956년 신축 기록은 오류로 보인다.⁶⁾ 지붕목조에서 상량이 발견되면 좀 더 정확한 신축시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배치>

- 장방형 강당이 북쪽에 교문을 둔 교지의 서북측에 치우쳐 자리한다. 건립 당시에는 강당 동측에 강당과 직각으로 본관이 동서로 길게 남쪽 운동장을 향하여 자리했고, 본관 남쪽에는 본관과 나란히 짧은 교사 2동이 있었다.
- 길쭉한 본관에서 강당에 가까운 서쪽 단부를 단층으로(나머지는 2층) 처리하고 강당 동측면 중 북쪽 개구부에 접속시켜 실내로 본관○강당이 연결되었다. 본관과 강당을 별동으로 짓고 지붕 없는 외부복도를 통해 강당 주출입구로 연결하는 일제강점기 여타 학교강당의 배치방식과 달리, 본관을 강당에 직접 연결한 점과 강당 무대 우측 부속실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 본관과 교사 2동은 모두 철거되었고(1986년 추정: 학교 연혁지) 현재 이 자리에는 주차장이 있고 1986년 신축된 현재 본관과 교사동(동관)은 운동장 남쪽과 동쪽에 L자를 형성하며 자리한다.



대구 동운정심상소학교
(1937)
(1만분1조선지형도)



대구 동인국민학교 항공사진
(1954)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대구 동인국민학교 조감도(1967.8 ~ 1984.7)
(대구동인초등학교 연혁지)

4) 동인초등학교 교무실에 보관된 <대구 동인초등학교 연혁지>

5) 이는 <1만분1조선지형도집성>(조선총독부 간행) 내 대구 지형도(1937년 작성)에 강당이 현재 위치에 표현되어 있는 점, 이후 증개축은 있었지만 철거한 기록이 없는 점, 본관과 기타 건물의 낙성식이 1936년 6월 14일 있었는데 본관이 강당과 접속하고 있었으므로 '기타' 건물에 강당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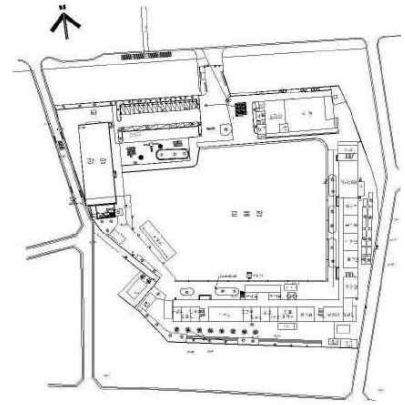
6) <문화재 등록신청서>, 『(대구)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보고서』(2004), 『근현대교육시설 일제조사 연구보고서』(2017)에는 모두 1956년 6월 1일 신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대구 동인국민학교> 강당 재산대장<대구광역시 제공>의 '강당'이 이때 신축되었다는 기록에 따른 것인데, 이 '강당'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이 124.1㎡에 불과하다. 재산대장은 1984년 강당의 면적 오류를 수정하고 있어 이 면적은 잘못된 것이므로 1956년 신축이라는 기록 역시 오류로 보인다.



본관의 서측부분 단층이 강당에 연결됨
(사진은 1959년 학교 졸업앨범)



대구 동인초등학교 항공사진 (2018)
(Daum 지도)



대구 동인초등학교 배치도 (2018)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구조>

-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창대까지 무근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그 위에 붉은 벽돌 화란식 쌓기로 벽체를 올린 후 평보 위 코니스를 얹은 듯 보이도록 외팔보 형태로 철근콘크리트 테두리보를 두른 후 목재 만사드 트러스로 지붕틀을 짚으리라 짐작된다.
- 무대 뒤쪽 테두리보 상부에는 위를 3번 접은 합각벽(gambrel gable)이 올라와 있는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보인다. 반대 정면쪽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증축하면서 원형을 잃었다.
- 서측·북측 입면의 각 출입문 위에는 외팔보 형식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캐노피를 내었다. 운동장으로 향하는 동측면 남쪽 출입문 위에는 최근 캐노피가 추가되어 원래 처리를 알 수 없다. 동측면 북쪽 출입문은 본관과 실내로 연결되었기에 캐노피는 없었을 것이다.
- 바닥은 원래 맨바닥에 동바리를 세우고 멩에와 장선을 건 후 장마루를 깔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체육관 지정 바닥재를 설치한 상태이다. 바닥재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바닥마감 아래 원 부재들을 걷어내고 최하부 바닥에 철근콘크리트 치기한 후 바닥을 재구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평면 및 외관>

- 장방형 평면에 짧은 쪽 한쪽에 무대, 반대쪽에 주출입구를 두는 좌우대칭의 평면 구성, 붉은 벽돌 조적조가 주를 이루고 세로로 긴 창을 내는 외관, 본관 등 교사동 가까이 배치한 것이 일제강점기 학교 강당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다. 지붕에는 만사드 트러스를 높게 짜서 건물이 장대한 느낌을 준다. 동·서방향 긴 외벽에는 처마선보다 꽤 높게 올라간 굴뚝이 각각 2개씩 있고, 증축부와 접속하는 남측 모서리 부위에도 굴뚝이 하나 더 있었던 흔적이 있다. 지붕에는 동판 一자형 거멸접기로 이었는데, 신축 당시에도 一자형 잇기였는지는 알 수 없다.
- 남쪽으로 최소한 2차례 증축이 되어 원래의 남쪽 입면은 사라졌고 만사드 지붕의 일부도 증축부에서 변형되었다. 원래 남쪽 입면에 주출입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외벽은 아래로부터 3단 구성을 한다. 무근콘크리트 치기로 추정되는 하부벽, 붉은 벽돌 화란식 쌓기 벽과 세로로 긴 창, 테두리보로 몰딩 효과까지 낸 코니스의 구성이다. 하부벽과 코니스에는 몰탈바름 위 페인트칠되어 있다, 코니스는 다시 상하 3단으로 나뉘는데, 가운데 덴틸(dentil)을 연상시키는 장식을 삽입해 건물 전체에 입체감과 생동감을 준다.
- 운동장을 향하는 동측 외벽은 5개 구역으로 나뉘고 각 구역의 ㄱ자 안쪽을 벽돌마구리만큼 들여쌓기한 후 세로로 긴 창을 3개씩 내었다. 좌·우 끝단 구획은 폭이 좁고 역시 각각 ㄱ자 안쪽을 같은 깊이로 벽돌 들여쌓기한 후 출입문을 내었다.
- 반대 서측 외벽에는 출입문이 가운데 구역에 나 있다.
- 북쪽 외벽은 3구역으로 나뉜다. 가운데 무대 뒤 벽면을 바깥으로 얇게 튀어나오게 했는데, 실내에서 보면 무대 뒤쪽 이곳에 판문을 달고 교육칙어를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좌우 구역에는 무대 양 옆의 부속실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외여단이 문을 내고 캐노피를 내밀었다.
- 남쪽 외벽의 구성도 북쪽과 같게 하고 가운데 튀어나온 벽면에 세로로 긴 창을 냈을 것으로 짐작되나, 일찌감치 증축으로 인해 철거되었다
- 출입문을 사방으로 낸 셈인데, 북측면과 서측면 출입문 위에 내민 철근콘크리트 조 캐노피를 받치는 단단으로 튀어나오는 까치발이 장식 효과를 낸다.
- 운동장을 향하는 동측 외벽의 북쪽 끝 구역의 출입문 상부 벽돌에는 철거된 본관의 서측 단부 박공면이 접속한 흔적이 남아 있다.



북서쪽 모서리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본관 서측 단부 박공면 접속 흔적
(조사자 촬영, 2020.6.29)

<내부>

- 강당은 현재 체육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바다, 벽체, 천장, 무대, 창호 등 전체적으로 증축과 여러 차례 수리를 거치면서 원형을 잃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동인초등학교 교무실에 비치된 <동인초등학교 연혁지>에 기재된 강당 관련 내용을 추리면 아래와 표와 같다.

날짜(준공일)	강당 연혁	비고
1957.10.31.	증축	증축부분 미표기
1971.2.15.	중수	중수내용 미표기
1986.12.6.	보수공사 (지붕 개량, 도색, 실내천장·전기 및 전등 보수)	‘도색’ 위치 미표기
1988.12	천장재 3곳 대체	
1993.8.17.	누수 보수(지붕 둘레 물받이)	

날짜(준공일)	강당 연혁	비고
1995.12.27.	수리(바닥, 벽, 천장 일부)	
2007.6.15.	천장 안정기 및 램프 교체	
2007.6.25.	주출입문 교체	
2012	바닥 샌딩 도장 공사, 천장 텍스보드 공사, 천장 등(燈) 교체공사	바닥마감 및 천장마감 교체된 것으로 추정
2015.1.14.	외벽 도색	
2016.3.16.	천장텍스 교체 및 조명 LED로 교체 공사	
2016.3.16.	강당 간이화장실 설치	현재 없음
2016.4.31.	빔 프로젝터, 정보화 장비 보관함 등 설치(강당 정보화 사업)	
2017.4.10.	리모델링(바닥 교체, 무대, 벽면, 냉난방기)	
2017.4.10.	부대시설(체육창고, 샤워장, 화장실, 연구실) 증축	강당 남측면에 증축

○ 위 내용 중 큰 변화를 초래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 ① 1957년 10월 증축
 - ② 1971년 2월 중수
 - ③ 2007년 6월 주출입문 교체
 - ④ 2012년 바닥재 및 천장재 교체
 - ⑤ 2016년 3월 강당 간이화장실 증축
 - ⑥ 2017년 4월 바닥재 교체, 무대 및 벽면 리모델링
 - ⑦ 2017년 4월 강당 남측면에 부대시설 증축
- 1957년 증축과 1971년 중수의 공사내역은 없으나 이때 큰 변형이 있었고, 2000년대 들어와 천장재를 포함해 내부마감 전체가 교체되면서 내부변형이 되었고, 2016년과 2017년 강당 남쪽으로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증축되면서 변형이 더해진 것으로 요약된다.
- ① 1957년 10월 증축의 성격은 1960년대 사진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강당 남측면으로 2층 건물(2층 중 남쪽은 외부 테라스)을 증축하면서 강당 지붕을 변형시켰고 가장 남측면에 외부 발코니를 만들었다. 2018년 실측 후 작성된 아래 평면도에서 점선부분이 신축 당시 남측 외벽이었는데, 이 외벽을 헐어내고 증축하였다.
- ⑤ 1916년 증축된 강당 간이화장실은 ⑦ 2017년 4월 화장실을 포함하는 부대시설 증축 때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⑦ 공사 결과 ① 1957년 증축부 남쪽에 다시 단층 건물이 추가증축되었고, 외부 발코니는 실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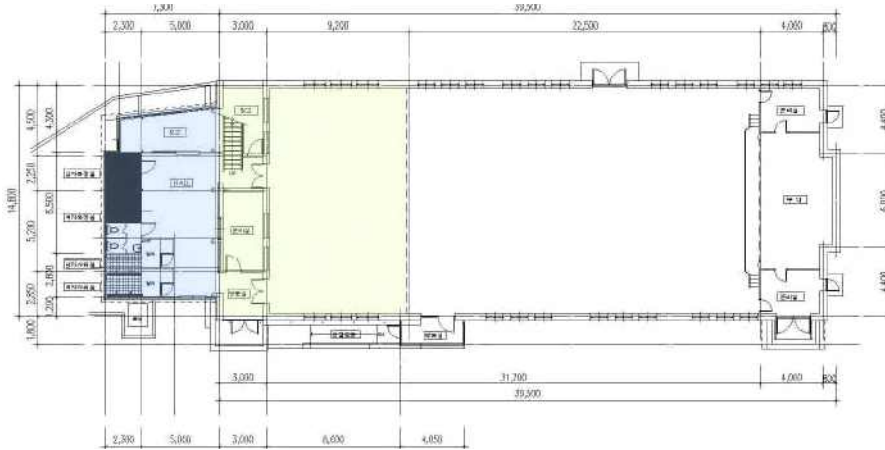
강당 증축부(1960년대)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1957년 증축부와 원 강당의 연결부위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2017년 증축부(단층 경사지붕 부분)과 1957년 증축된 발코니의 실내화(2017)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강당 1층평면도(2018년 작성)에 증축부 표시(연두색: 1957년 증축,
하늘색: 2017년 증축)

- <동인초등학교 연혁지>에 기록된 나머지 변형 및 수리는 내부 마감 및 창호 변경에 대한 것이다. 사진기록을 참조하면 원래 동서 입면의 출입문은 2짝 미닫이 목재 판문이고 남동 입면의 출입문은 목재 1짝 미닫이 목재 판문이며, 출입문 상부 작은 불박이 채광창 제외하고 외벽에 크게 난 모든 창은 세로로 긴 목재 오르내리창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현재 2짝 미닫이문은 모두 스테인레스 스틸 틀 2짝 유리 여닫이문으로, 1짝 미닫이문은 철재 여닫이문으로 바뀌었고, 오르내리창의 창틀은 모두 알루미늄으로 바뀌어 있다.
- 운동장 쪽 동측 면에 2개 출입문 앞에는 경량철골로 캐노피를 덧대었고 남쪽 출입문에는 외벽면을 따라 경사로와 차양도 추가로 설치했는데, 이 공사기록은 없다.



동측 입면(좌우 출입문에 추가된 방풍실(좌) 및 캐노피(우))
(조사자 촬영, 2020.6.29)

- 내부의 바닥, 벽면, 천장, 무대, 출입문 등은 여러차례 변경되어 원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 2017년 경 천장을 뜯어내고 벽천장 모서리를 찍은 사진을 보면, 문양을 부조로 넣은 석고 반자돌림띠를 둥글게 돌린 후 사선방향으로 井자형 반자틀을 짜고 엇모무늬로 치장합판을 붙여 반자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천장재 교체공사 때 반자와 반자돌림띠는 모두 철거되었으리라 짐작된다.
- 다른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공사 당시 사진이나 공사기록 등을 확보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천장모서리 처리와 천장재 (2016년 천장재 교체공사 중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 애초에 무대는 나무로 짜여 있고 강당 폭에 비해 꽤 좁고 무대 좌우로 부속실로 난 문이 있었는데, 현재는 양쪽 문을 막고 무대를 넓혔다.
- 반대 남쪽 내부입면도 증축하면서 원형을 처음 잃은 후 변형이 더해졌다.



강당 무대(1960년대)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강당 무대(1960년대)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강당 무대
(조사자 촬영, 2020.6.29)



강당 남쪽 내부입면(1960년대)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강당 서쪽 내부입면(1960년대)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강당 남쪽 내부입면
(조사자 촬영, 2020.6.29)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학교 안에 위치한 시설로서 현재 사용중이며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하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현재 학교 강당으로 활용중이며 현재와 같은 활용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학교 강당으로 등록된 문화재로는 <대봉동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제5호),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제60호), <전주 신흥고등학교 강당 및 본관 포치>(제172호),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제176호), <홍성고등학교 강당>(제272호), <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제350호), <청주 대성여자중학교 강당>(제351호),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강당>(제428호)이 있다.
- 동일 유형의 사적은 없다.
- 시도유형문화재로서 <세종 부강초등학교 강당>(세종시 유형문화재 제5호)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대구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44호)이 있다.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과 유사성 및 원형 추정>

- 이 중에서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元 남산정공립심상보통학교 강당, 1936, 건축면적 및 연면적 402.78㎡)은 본 신청건물과 쌍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크기·형태·재료·디테일을 가졌고 신축시기도 거의 같다. 같은 설계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 차이점은 2가지가 잡힌다. 남산초등학교 강당에는 굴뚝이 없는 점, 본관과 연결되는 위치가 다른 점이다. 후자는 대지조건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차이로 보이며, 본 신청건물에만 굴뚝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남산초등학교 강당은 도로개설 때문에 5m 옆으로 이축되기는 했지만 원래 형태는 잘 간직하는 반면, 본 신청건물은 여러 차례 증개축 및 수리 과정에서 원형을 많이 잃었다. 특히 1957년 증축과정에서 일찌감치 철거된 남측 정면의 모습은 남산 초등학교 강당 정면에서 유추할 수 있고, 이축과정에서 조사된 구조방식·디테일·마감처리 등도 본 건물의 원형을 살펴보기에 유용하다.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 정면
(문화재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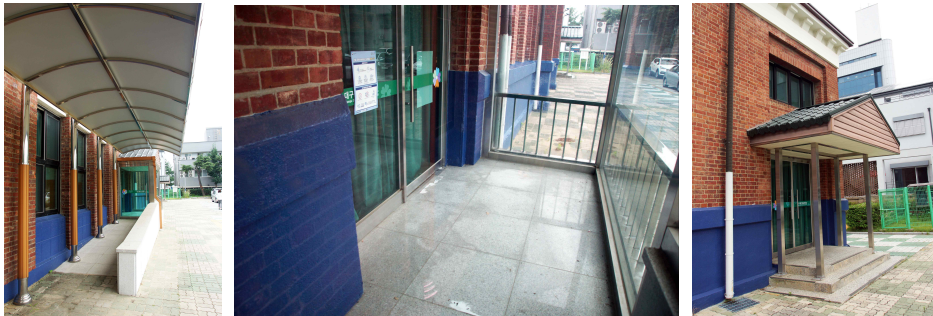
7) 등록가치 의견

- 소학교 강당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에 장대하고 고급스러운 처리로 보아 학교나 강당의 위상이 꽤 높았던 듯하다.
- 증축으로 인해 남측 외벽은 철거되었고 출입문·지붕·내부 등에 걸쳐 여러차례 수리과정에서 광범위한 변형이 있었으나, 외벽·캐노피·창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지붕틀 역시 증축으로 인한 변형은 있지만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내부는 원형을 거의 잃었다. 1957년 증축부는 1960년대 일제강점기 지어진 학교 강당의 활용 방식을 보여주고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2017년 추가 증축이 있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강당의 실질적인 외관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본 강당은 유형문화재인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과 매우 유사한 점이 독특하고, 식민지기 대구부의 도시성장 및 사회사와 연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 이에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건축적·역사적·사회적 가치를 보존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은 현재 교명을 반영하여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이 적절해 보인다.
- 2016~2017년에 걸쳐 증축된 부분은 가건물처럼 처리되었고 원형 건물이나 1957년 증축 부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최근 설치된 동측면 2개 출입문 앞 방풍실·캐노피와 경사로 위 차양 역시 형태·재료·시공 측면에서 조악하다. 하부벽의 채도 높은 푸른 페인트 색은 붉은벽돌과 어울리지 않는다. 모두 철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동측 입면의 좌측 출입문 앞과 우측 출입문 앞
(조사자 촬영, 2020.6.29)

4. 「속초 동명동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강원도 속초시 소재 「속초 동명동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속초 동명동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9.1.16.)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6.4.)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춘천교구 천주교회
- (2) 대상문화재명 : 「속초 동명동성당」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7길 10-5(동명동 332)
 - 소유자 : (재)춘천교구 천주교회
 - 수량 : 1동
 - 건축면적 : 280.2㎡(건축물대장)
 - 건립시기 : 1953년 8월
 - 구조 : 석재 조적조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1.1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강원도→문화재청)
 - ('20.6.4.)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20.6.4)
 - 본 성당은 속초시가 갖는 역사적 성격과 시대적, 사회적 의미를 온전하게 담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골롬반 외방선교회가 짓고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평성당이나 묵호성당처럼 표준 설계에 의해 지어지지 않음에 따라 건물의 원 모습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20.6.4.)

- 속초 동명동성당은 6·25전쟁 기간 중 미군이 수복한 38선 이북지역에 위치하였으며 또한 당시 미군정 하에 지방자치권이 인정되었던 특수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건립되었다는 측면에서 희소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천주교 및 지역사적 측면에서의 상징성 및 역사성과 함께 본당 건물의 건축적 내력 등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비교적 잘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증축된 면적이 비교적 크고 또한 그로 인해 평면 형태뿐만 아니라, 구조체에 물리적인 변형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6.4.)

- 동명동성당은 한국전쟁 직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립되었으며,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등록문화재의 등록여건상 형태와 재료, 공간적 변형이 크고, 주요구조부의 원형보존 판단이 어려운 점에 미루어 문화재 등록기준에 미흡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추가 자료 조사 필요(내부 증축구조 및 지붕재 변화 등)

○ 출석 11명 / 보류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속초 동명동성당 (구) 속초 동명동성당
2. 용 도 : (현) 교회시설 (원) 교회시설
3.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7길 10-5(동명동 332)
4. 소유자 : (재)춘천교구 천주교회
5. 건축물 개요
 - 설 계 : 미상(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맥고완(P. McGowan)신부에 의해 설립됨)
 - 시 공 : 미상
 - 건축구조 : 석재 조적조 및 목조트러스지붕
 - 건립시기 : 1953.8.
 - 수량/면적 : 1동(지상1층) / 건축면적: 280.20㎡

6. 조사자 의견('20.6.4.)

<○○○>

1) 개요

- 춘천교구 소속 본당으로 1952년 10월 5일 양양본당으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초대 신부는 파트리시오 맥고완(P. McGowan)신부였다.
- 속초시는 38선 북쪽에 위치한 까닭에 해방직후에는 북측 행정구역에 포함되었으나, 전쟁중 속초지역이 탈환되어 남측 행정구역에 편성된 도시다. 전쟁후 탈환된 속초지역이 미군에 의해 관할될 당시 이주 난민이 급증했고, 이때 교구장 직무대리 헤이워드(Hubert Hayward 오남성)신부에 의해 속초에 성당이 설립되면서 결정되었고, 맥고완신부가 부임했다.
- 1952년 속초지역이 탈환되면서 주문진 북쪽지역인 고성군과 속초시 전역을 관할하는 본당으로 설정되었으며, 1953년 8월 15일에 본당이 준공되었다.
- 당시 맥고완신부는 중군신부를 겸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미군의 지원을 받아 본 성당을 신축할 수 있었다.
- 교세가 확장되면서, 1958년에 간성성당, 1967년에 교동성당이 분가되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화강석에 의한 조적조로 지어졌으며, 건축양식을 논하기 어려운 건축이지만, 부분적으로 양식건축의 특징을 갖고 있다.
- 반원형 아치창호를 갖고 있고, 창호의 크기가 벽체의 면적에 비해 매우 작다는 점에서 로마네스크건축의 특징적 요소를 갖고 있다.

- 전면과 측면의 벽체와 탑의 벽체가 약간 경사지게 세워진 것은 조적조건축에서 안정적인 벽체를 구성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명동성당 전경



동명동성당 축성식 후 기념사진

- 준공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는 석재로 지어진 교회의 모습이 선명하고, 중앙의 탑 상부의 사각뿔은 목구조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의 성당 외벽은 페인트로 칠해져 있다.
- 준공 직후에 촬영된 기념사진에는 성당 뒤편에 건물이 보이는데 사제관으로 추정된다. 사진속 사진관은 현재 없다.



동명동성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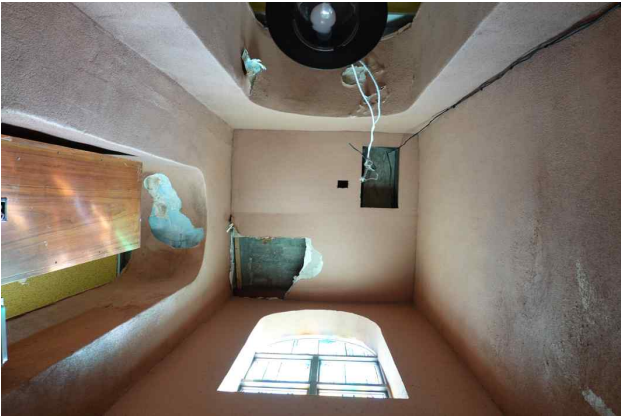
동명동성당 측면



동명동성당 정면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원 모습의 윤곽은 잘 보존되어 있으나, 석조벽체가 페인트로 칠해져 석조교회건축의 느낌이 많이 퇴색되었다. 그러나 도색된 부분은 페인트 제거작업을 통해 원 모습을 회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내부 인테리어는 바뀌었지만 공간구조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성가대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부속공간을 성가대 공간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변형과정에서 벽체 개구부가 넓게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 종탑 내부의 종은 신축 당시의 것이다.
- 천정속에는 지붕을 형성하는 목조트러스가 형성되어 있다.



종탑 내부, 앙시모습



주출입구방향



제단방향 회중석



제단 옆 성가대석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전반적으로 매우 잘 관리되고 있으며, 바닷가 언덕에 위치해 있어, 바닷가와 항구를 조망할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히, 6.25전쟁기에 수복지역에 미군정기에 교회가 성립되고, 휴전협정 직후에 준공됨으로써 접경지에 위치한 종교시설로서는 시대성과 장소성이 입지 및 주변 환경과 함께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동명동성당은 양양성당에서 분리되었으나, 6.25전쟁으로 수복된 지역에 성립된 최초 교회로 군중신부가 1대 신부를 맡았고, 이 인연으로 미군의 지원으로 건축된 성당의 역사 그리고 동명동성당이 수복지역에서 성장하면서 같은 수복지역 내 간성성당과 교동성당이 분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복지역내 가톨릭 교회의 성장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사적 의미가 있는 내용이 보존 및 활용 계획에서 부각될 필요가 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속초가 갖는 수복지역의 역사성을 오롯이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입지가 갖는 강점을 적극 활용할 경우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사회성 그리고 장소성을 활용하는 계획의 구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 · 검토

- 전후 1950년에서 1960년대에 건축된 교회와 성당,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지역 한국 군대 또는 미군의 지원을 받아 석조건축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명동 성당 역시 이러한 시대적 입지적 특성이 반영된 성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명동 성당이 유사한 재료로 지어지는 성당 중에서도 가치가 두드러지는 것은 전쟁전 북의 관할 하에 있던 땅이 전쟁을 통해 남의 관할하에 놓이게 되었고, 미군정하에 종군신부에 의해 성립된 교회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교인의 구성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 따라서, 동명동성당은 수복지역에 실향민이 중심이된 성당이라는 역사성과 사회사적 의미가 큰 성당이며, 둔탁하지만 진정성있는 성당의 모습이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본 성당은 속초시가 갖는 역사적 성격과 시대적, 사회적 의미를 온전하게 담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골롬반 외방선교회가 짓고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평성당이나 묵호성당처럼 표준 설계에 의해 지어지지 않음에 따라 건물의 원 모습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속초 동명동성당

<○○○>

1) 개요

- 동 건물은 ‘속초 동명동 성당’ 본당으로 6·25전쟁 중 난민과 미군 신자 등을 위해 당시 춘천교구장 직무대리로 있었던 ‘오 후베르트 신부’가 성당 건립을 제안, 1952년 성당으로 설립이 승인되어 초대 신부로 성 골롬반외방전교회 소속 ‘맥고완 신부’가 부임한 후, 그 이듬해인 1953년 8월 미군 부대의 지원을 받아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성당은 속초항이 내려다보이는 해안가 인근의 구릉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과거 이 일대는 북양양 지역으로서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6·25전쟁 중 미군이 수복 한 뒤, 다른 지역과 달리 미군정 하에서 지방자치권이 인정된 특수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음(이러한 이유로 성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 등은 당시 속초읍장(민정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김근식(세례명 베드로)이라는 인물의 협조 하에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함)
- 전쟁기간 중 38선 이북의 수복지역에 성당을 건립하게 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당을 설립할 수 있었으며, 또한 초대 신부로 부임하였던 ‘맥고완 신부’가 군중 사목도 겸하였음.
- ‘맥고완 신부’는 1952년 퀸셋 건물을 세워 현재의 본당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본당과 신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는데, 오늘날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이 건물은 그 이듬해 8월 성당 축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교육관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사용하였다고 함. 본래 성당 영역 내에는 본당을 비롯하여 사제관, 사제관, 수녀관, 복사 주택, 창고, 화장실 등 여러 동의 부속 건물이 함께 건립되었으나, 현재는 본당만이 남아 있음.

- 본당 건립에 사용된 건축재료 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되었는데, 벽체 축조에 사용된 석재는 인근에 위치한 영금정 채석장에서 구입하였고(석장은 충청도에서 3명이 왔다고 함), 지붕트러스 위의 마감재는 미군수송부대에서 가져온 드럼통을 펼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과거 기록사진에 의하면, 성당 주변 해안가에 미군부대(항만과견대로 추정)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날 현존하는 기록사진 대다수가 당시 부대에 근무하였던 미군들이 촬영한 것을 기증 받은 것으로, 사진 속에 성당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당시 주변 상황과 건물의 초기 모습 등을 파악할 수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본당은 기본적으로 정면8.3m×측면24.3m 규모의 一자형 바실리카식 장방형 평면을 취하고 있지만, 제대 우측편으로 一자형태의 공간(회중실, 제의실, 유아실)을 달아내어(1973년 증축) 전체적으로는 불규칙적인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음.
- 一자형 장방형 평면의 내부공간은 네이브, 아일 등의 구분 없이 하나의 통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래 제단 뒤쪽에는 제의실을 두었으나,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 증축 공사를 통해 一자 형태의 평면이 우측면에 덧붙여지는 과정에서 그 만큼의 조적벽체가 철거되었고 내부에서 서로 통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음.
- 전면에 포치를 두어 현관으로 하고, 그 뒤편으로 내벽에 면하게 방형의 종탑을 높게 세워 탑신(塔身)이 외부가 아닌 내부 공간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입면을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하였음. 포치는 본래의 것이 아닌 후에 새롭게 증축된 것으로 필요에 따라 과거 여러 차례의 증·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본당과 종탑의 결구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본당 건물과 달리 실내 중2층 공간에 별도의 성가대석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최초 본당이 건립되고 난 뒤 얼마 후 실내 공간 확장을 위해 지상에서 2.5m 높이에 폭8m×길이9m 규모의 2층 공간을 만들었으며, 지난 1970년대와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철거되었다고 함.
- 또한, 2층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기둥, 보 등의 건축 자재는 인근의 동해북부선철로를 가져와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하여 사진 및 도면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지붕가구는 천정 반자로 인해 직접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수리공사 과정에서 채록된 자료 등에 따르면 목조트러스로 결구되었고, 그 위에는 시멘트슬레이트와 동판 등으로 마감하였던 것으로 보임.
- 다만, 전언(傳言)에 따르면 최초 건립 당시에는 미군수송부대에서 가져온 드럼통을 펼쳐서 지붕 마감재로 사용하고 방수를 위해 그 위에 검은색 콜타르를 칠하여 당시 ‘검은교회’로 불리기도 하였다고 함.
- 벽체는 기본적으로 석재를 쌓아 구축하였는데,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네 면이 모두 안쪽으로 약간의 경사를 가지도록 하였고, 정면 외벽면의 양단부에서만 플랫버트레스를 설치하였음.
- 또한, 석재의 열화 방지 등 보호를 위해 표면과 줄눈에 흰색의 회칠을 하였으나, 과거 기록사진에 따르면 본래는 석재 표면은 거친 흑두기 다짐 정도로 마감하였고 줄눈은 그대로 노출되도록 시공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본당 건물의 건립 당시 및 초기 모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이 다수 남아 있어 원형보존 상태 및 변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임. 다만, 본당 우측편에 증축된 기지형 구조물로 인해 평면 형태 뿐 아니라, 구조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형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현재도 천주교 성당의 본당으로 계속해서 사용 중에 있으며, 또한 적기에 수리 및 보수 등이 이루어져 보존 및 관리에 따른 노후화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성당측 및 관할지자체에서는 천주교의 교회사적 의미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산물로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당 본당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 우려는 적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성당측과 관할지자체에서는 성당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과 지역청소년들에게 성당을 활용한 역사문화 교육을 통해 등록문화재로서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시대적 배경과 함께 성당 건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역사문화 교육 등에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천주교 성당 본당 건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전국에 걸쳐 다수 있으며, 특히 강원 영동지역에 위치한 강릉 임당동 성당(등록문화재 제457호), 삼척 성내동 성당(등록문화재 제141호) 등은 그 맥을 서로 같이 하고 있음.
- 속초 동명동 성당 역시 큰 틀에서 영동지역 각 성당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성당 건립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시대적·지역적 특징은 기타 사례와 차별되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된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속초 동명동 성당은 6·25전쟁 기간 중 미군이 수복한 38선 이북지역에 위치하였으며 또한, 당시 미군정 하에 지방자치권이 인정되었던 특수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건립되었다는 측면에서 희소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천주교 및 지역사적 측면에서의 상징성 및 역사성과 함께 본당 건물의 건축적 내력 등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비교적 잘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증축된 면적이 비교적 크고 또한 그로 인해 평면 형태뿐만 아니라, 구조체에 물리적인 변형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속초 동명동 성당 본당」

1) 개요⁷⁾

- 속초 동명동 성당은 1952년 10월 1일 양양본당으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됨
- 설립초기 명칭은 ‘속초성당’으로 시작하였으며, 1966년 12월 교동성당을 분리하면서 동명동 성당으로 명칭을 변경
- 전쟁 속에서 속초로 월남민이 증가하면서 오후베르트 신부(교구장 직무대리)는 성당 건립을 위해 현 동명동 성당 부지를 매입하고, 원 파트리치오 신부를 속초 본당의 주임으로 부임.
- 1952년 10월 1일 본당 설립 직후부터 본당 건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성당 부지 평토 작업 등의 기초작업을 마친 10월 20일부터 성당 건립을 시작하여 1953년 8월 15일에 현재의 성당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거행함.
- 본당 설립된 이후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타결되고 지역민과 전쟁 고아와 피난민에 대한 배려와 봉사에 대한 종교시설로 인식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속초 동명동 성당은 속초시에서 고성으로 연결되는 동해대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동명동 성당이 위치한 주변지역에는 속초항국제여객선터미널, 동명항, 속초시청과 영랑호 등이 인접하고 있으며, 동해 바다를 바라보는 우룡골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음. 동쪽으로 성모동산이 조성되어 있고, 제대방향으로 북쪽에 교육관과 사제관이, 서쪽으로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음.
- 본당설립과 동시에(1952년 10월 1일) 공사를 진행해 1953년 8월에 완공된, 전쟁기간 중 수복지구에서 건립된 유일한 성당으로, 성당의 배치는 증축된 성가대석과 제의실을 포함하여 T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북동쪽으로 제대, 남서쪽으로 주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음. 앵스와 같은 공간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 제대부분은 모임지붕, 주출입구는 박공지붕의 박공면 중앙에 중앙종탑(사각형평면에 뿔쪽침탑으로 구성)이 설치되어 있고, 증축부는 박공지붕으로 구성됨
- 평면은 남서쪽에 위치한 중앙종탑 하부에 주출입구를 통해서 성당 안으로 진입하며, 미사공간은 기둥이 없이 넓은 회중석이 위치하고 있음. 북동쪽에 위치한 제대 뒤편에는 교구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증축부로는 전면출입구 전실(레버렛 제공 사진 참조)과 제대방향으로 제대의 오른쪽에 증축된 회중석과 안쪽 복도로 연결되는 제의실과, 사목공간이 위치하고, 부출입구는 북서쪽과 남동쪽의 증축부에 부출입가 설치되어 있음.
- 건립 이후 중2층이 설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이후 다시 철거되고 현재의 내부공간 모습으로 리모델링 됨.
- 벽체마감은 석재를 쌓아 구성하였으며, 현재는 석재 위 몰탈을 마감하여 기존 석재마감의 형태와 패턴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석재의 마감면에 원래의 모습은 확인이 어려움.
- 창호의 상부가 반원아치의 형태로 통일감 있는 구성을 하고 있으나, 창문 재료는 알루미늄창으로 교체되어 있음
- 내부마감이나 지붕구조는 사용되면서 진행된 인테리어 마감으로 원래의 재료나,

7) 천주교춘천교구 홈페이지 참조

마감재 확인이 어려움

- 자료에 의하면 초기 사용된 건축재료와 모습은 성당 인근 영금정 채석장에서 주재료인 석재를 채취하여 사용하였고, 기초에 필요한 철근은 동해 북부선 철로를 활용하였으며, 지붕은 미군 수송부대의 드럼통을 펼쳐서 덮고 콜타르로 마감한 것으로 전해짐.
- 바실리카식 평면에서 단순화되고 변형된 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건축재료의 지역성과 시대성이 반영된 건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성당 몰탈마감 및 도색공사로 석재 쌓기의 패턴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원래의 모습과 변형 시기 등에 대한 이력을 정확히 알 수 없음.
- 2014년 증축과정과 내부리모델링 이력이 없어 기존 성당의 구조와 재료에 대한 변형 정도를 알 수 없으며, 변형된 마감에 의해 지붕구조 및 재료에 대한 원래의 모습을 확인이 어려움.
- 성당의 관리상태는 보수와 리모델링, 증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태가 양호하며, 전반적으로 노후도나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건립배경과 속초를 비롯한 강원지역에서 한국전쟁 이후 천주교의 사목활동과 더불어 전쟁 난민과 고아 등 대민 구호 활동의 거점공간으로서 상징적 의미와 함께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건축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소유자 및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성당의 지리적 여건과 부속시설의 배치 현황을 고려했을 때 보존과 관리여건 등이 양호하다고 사료됨.
- 또한 신청대상 건물은 주변에 성모동산, 사제관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성당 주변에 조경공간 등 완충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문화재 훼손이나 변형 등 저해할 만한 환경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동명동 성당은 한국전쟁 이후에 춘천교구 속초지역의 상황과 시대적 특징이 반영되어 건립되어 된 성당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음.
- 성당의 건립과정과 한국전쟁에 연관된 역사적 맥락의 연관성이 크고, 이 지역에 근대경관을 형성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따라서 종교적 의미와 더불어 지역에서 생활문화사적 의미를 내재한 동명동 성당에 대한 소유자와 지역사회의 의지는 성당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에서 활용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동명동 성당은 주변 관광여건과 지리적인 여건을 통해서 방문객이 유입이 많고 한국전쟁에 대한 지역사회의 교육과 홍보에 있어서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다. 기타사항

- 성당의 역사적·신앙적 가치 계승과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신안 흑산성당은 1957년 성 골롬반외방선교회의 지원으로 항구에서 가까운 언덕 위에 부지를 마련한 후 착공, 이듬해 11월 봉헌함.
-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장소이자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낙후되었던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했던 점에서 종교적 가치와 지역사적 의미를 큼.
- 건축적 특징과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문화재 원형의 모습을 잘 보존되어 있어 건축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높음.
- 동명동 성당은 기 등록문화재와 비교·검토해 볼 때 종교적 의미에 지역사회의 기여 등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볼수 있음. 그러나 문화재 등록에 필요한 건축의 형태와 주요구조부,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재료 등에 있어서, 변형에 정도가 큰 것으로 사료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속초 동명동 성당은 건립 이후 5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지역의 역사와 종교, 생활사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동명동 성당은 한국전쟁 직후 천주교 전파와 확장이라는 종교적 의미와 함께 한국전쟁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황폐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당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종교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음
- 건축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지역성과 시대성을 반영된 성당으로 사료됨. 그러나 동명동 성당은 건립 당시 형태와 구조 등 외형에 변형이 확인되며, 증개축과 보수 과정에서 재료와 구조, 공간의 변형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원형보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
- 종합적으로 동명동 성당은 한국전쟁 직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립되었으며,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등록문화재의 등록 여건상 형태와 재료, 공간적 변형이 크고, 주요구조부의 원형보존 판단이 어려운 점에 미루어 문화재 등록기준에 미흡하다고 사료됨.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시 명칭은 ‘속초 동명동 성당’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5. 「독립신문 상해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독립신문 상해판」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9.11.27.)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0.7.22.)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크기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독립신문 상해판	170점	38.5×27cm 등	1919~1926년	대한민국역사 박물관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11.27.) : 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0.7.2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7.22.)
 - '독립신문 상해판'은 1919년 8월부터 1926년 11월까지 만 7년에 걸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국한문으로 발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임. '독립신문 상해판'은 독립군의 활약상, 세계정세의 흐름, 일본의 만행과 침략에 대한 비판, 민족 독립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중요한 가치를 지님.

- 또한 신청 유물은 기 등록 제510호 독립신문 상해판(연세대학교 소장본)이 미소장한 호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음.

○ ○○○('20.7.22.)

- '독립신문 상해판'은 1919년 8월 창간되어 1926년 11월 정간할 때까지 총 198호를 국한문으로 발행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 기관지로, 임시정부의 시정 방침과 각료의 동정, 임시의정원의 개회와 회의록, 국내의 독립운동 동향, 만주와 러령 연해주의 독립군 전투를 비롯한 활동 내용 등을 담고 있음. 해당 유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가치와 존재가치를 실증하는 1차 사료로 전시, 교육, 학술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가치가 있으며, 기 등록된 연세대 소장본과 상호 보완을 이룰 수 있음.

○ ○○○('20.7.22.)

- '독립신문 상해판'은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임시정부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며, 일제 식민 지배의 실상을 고발하는 등 한국독립운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자료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은 1919년 창간호부터 1926년까지의 제198호 중 170개 호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굴되지 않았던 5개 호를 소장하고 있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독립신문 상해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 소유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 조사자 의견('20.7.22.)

<○○○>

1) 개요

- 『독립신문 상해판』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국한문으로 발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로 1919년 8월부터 1926년 11월까지 만 7년에 걸쳐 모두 198호가 발행되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신청한 수량은 이 중에서 170점임.
- 창간이후 그 해 10월 16일(제21호)까지의 제호는 『獨立』, 10월 25일(제22호)부터는 『獨立新聞』, 1924년 1월 1일(제169호)부터는 『독립신문』으로 바뀌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독립신문(獨立新聞)』(국가등록문화재 제506호)은 처음 서재필 박사가 1896년에 발행하였다가 3년 뒤에 폐간된 최초의 민간신문의 제호임. 이후 이 제호는 상해에 망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자체의 기관지의 제호로 다시 사용되었음. 그래서 두 신문의 구분을 위해 상해에서 발행한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을 보통 『독립신문 상해판』로 일컬음.
- 임시정부에서는 민족의 독립 이념을 전파하고 국내외의 여러 독립운동 활동, 임시정부 조직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국한문신문인 『독립신문 상해판』을 1919년부터 1926년까지 만 7년 동안 상해에서 총 198호를 발행하였음.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국한문 신문 외에 같은 이름으로 중문판으로도 발행하였음.
- 『독립신문 상해판』은 주로 국내외의 독립운동 소식과 독립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소개하였음. 창간사에서 신문의 발간 목적을 ①독립사상 고취와 민심통일, ②독립사업과 사상 전파, ③유력한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를 독려하여 국민의 사상과 행동의 방향 제시, ④새로운 학술과 새로운 사상 소개, ⑤국사(國史)와 국민성을 고취 및 개조 등이었음을 밝히고 있음.



<사진1> 개천절 기념호(좌)와 3.1절 기념호(우)

- 1919년 8월 21일에 『獨立』이라는 제호로 창간호를 발행한 뒤 주 3회(화, 목, 토요일)에 국한문으로 발행되었음. 『독립』은 1919년 10월 16일자(제21호)까지 발행되다가 10월 25일자부터 제호를 『독립신문』으로 바꾸어 발행하였음. 1920년 6월 24일자(제86호)를 발행한 뒤 다시 신문사가 봉쇄되었다가 그 해 12월 18일자(제87호)로 속간하였음. 1921년 6월에는 인쇄소 폐쇄로 정간되었다가 그 해 8월 15일자(제110호)로 속간되었음. 1925년부터 1926년 동안 겨우 19호를 발행하다가 폐간되었음.
- 인쇄방식은 흑색 인쇄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기념이 되는 호는 적색이나 청색으로 인쇄하였고, 사진이나 그림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를 수록하였음. 판형은 제190호까지는 타블로이드판, 제192호부터 제198호까지는 타블로이드판의 절반 크기인 국판이었음.



<사진2>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소장 유일본 5개호

- 이렇게 『독립신문 상해판』은 모두 198호가 발행되었는데 국내외 소장을 확인한 결과, 이전에는 9개호가 확인되지 않았음. 다행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에서 5개호가 확보됨으로써 이제는 4개호만 미확인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종이의 산화.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이므로 보존환경은 좋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독립신문 상해판』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자체 소장본 외에 산재한 『독립신문 상해판』을 2016년부터 기사목록과 함께 원문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음.



<사진3> 『독립신문』 원문이미지 제공(대한민국 역사박물관)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의 국가등록문화재 제510호(2012.10.17.)인 『독립신문 상해판』은 전 198호 중에서 21개호가 결락되어 있음. 이에 비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소장본중에서 제177·178·179·180·195호 등 총 5개호는 현전하는 독립신문 상해판중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독립신문 상해판』은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독립군의 활약상, 세계정세의 흐름, 일본의 만행과 침략에 대한 비판, 민족 독립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소장의 『독립신문 상해판』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사에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며, 전체 198호 중 창간호와 마지막 호를 포함한 총 170호를 소장하고 있음. 특히 그동안 미공개된 제177, 178, 179, 180, 195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 등록 문화재인 연세대 소장본과 상호 보완됨.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독립신문 상해판』(『상해판 독립신문』)은 국한문판과 중문판이 있음. 또 신문명과 발행지역명을 동일하게 배열하는 것도 약간의 혼란이 있음. 명칭 등록방식에 문제가 없다면 『독립신문(상해판)]이나 『독립신문(국한문 상해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참고문헌

- 최기영, “독립신문해제”(http://archive.much.go.kr/archive/newspaper/release.do)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s://www.much.go.kr/museum>)
- 『독립신문』 (http://archive.much.go.kr/archive/newspaper/index.do)

<○○○>

1) 개요

- ‘독립사’ 또는 ‘독립신문사’ 명의로 발행하였지만, 실질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기관지임
- 1919년 8월 창간되어 1926년 11월 재정상 이유로 정간할 때까지 총 198개 호를 국한문으로 발행하였음
- 독립신문 상해판은 1919년 8월 21일자로 창간, 처음 『獨立』이라는 제호로 주 3회(화, 목, 토) 국한문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발행함
- 1919년 10월 25일자 22호부터는 『獨立新聞』, 1924년 1월 1일자 169호부터는 『독립신문』, 1926년 이후에는 『독립』으로 제호를 바꿔가며 주 2회(화, 토), 또는 旬刊, 또는 부정기로 발행하다가 1926년 11월 30일자 198호로 종간함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독립신문 상해판은 1면에는 사실과 국제정세, 2면에는 임시정부 소식, 3면에는 만주와 러령 연해주 등 독립운동계 소식, 4면에는 본국(국내) 소식과 문예 등 종합지로 꾸며짐
- 구체적으로 임시정부의 시정 방침과 각료의 동정, 임시의정원의 개회와 회의록, 국내의 독립운동 동향, 만주와 러령 연해주의 독립군 전투를 비롯한 활동 내용 등이 자세하게 보도됨
- 아울러 3.1 독립기념일, 4.11 임시정부수립기념일, 8.29 국치기념일, 음력 10.3 개국기원절(개천절) 등 임시정부의 기념일 행사 내용도 여러 차례 소개됨
- 특히 대한군정서 총재 서일의 청산리대첩 전과 보고 등 만주 독립군의 승전보, 김익상의 상해 황포탄 의거나 김지섭의 도쿄 일 왕궁 투탄 기사 등 의열투쟁 소식, 국내의 학생운동이나 농민운동·노동운동 등 각계각층의 항일투쟁, ‘한국독립운동의 진상’이나 ‘아령실기(俄領實記)’ 등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태극기’ 등 애국 시와 ‘피눈물’ 등 항일소설 등도 연재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독립신문 상해판 총 198개 호 가운데 결본 28개 호를 제외한 170개 호의 원형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지면의 일부분이 훼손된 것도 있음
- 특히 발간된 지 100년이 넘었거나 그에 도달하여 지면 전체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170점의 독립신문 상해판은 향온 향습화된 수장고에서 낱장으로 보존 처리된 상태로 잘 관리되고 있음
- 하지만 수장고가 매연으로 찌든 대도시 한복판에 그것도 화재에 취약한 노후화한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장기적인 보존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독립운동시기 우리 역사상 최초로 성립한 국민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실증하는 원본 자료로 다양한 활용 가치를 지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장차 건립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시와 교육과 학술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아울러 한국 독립운동사는 물론 근대 신문사, 나아가 근대 문화사와 사상사 자료로 활용이 기대됨
- 특히 ‘의회’(임시의정원)와 ‘정부’(임시정부) 등 헌법 기관을 매개로 국민주권주의가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민주주의 역사’ 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연세대 소장본 독립신문 상해판이 현재 동일 유형의 국가등록문화재 제510호로 등록되어 있음
- 이와 비교하여 신청 자료는 아래와 같은 가치를 지님
 - ① 신청자료가 연세대 소장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우수함. 연세대 소장본 창간호는 전면의 아래 부분이 망실되었지만, 이 자료는 전혀 손상이 없고 대부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음
 - ② 신청자료는 연세대 소장본 가운데 결호 부분을 일부 보충할 수 있음. 연세대 소장본은 21개 호의 결본이 있는데, 이 가운데 5개 호(177~180호, 195)를 이 자료로 보충할 수 있음
 - ③ 연세대 소장본과 신청 자료가 상호 보완을 이루면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음. 연세대 소장본은 21개 호(40, 125, 126, 177~182, 186~188, 190~198)의 결본, 신청 자료는 28개 호(2, 3, 4, 40, 46, 87, 88, 90~99, 101~106, 125, 187, 189, 190, 191호)의 결본이 있어 상호 보완하면, 독립신문 상해판의 결본 수는 5개 호(40, 125, 187, 190, 191호)만 남게 됨
- 독립신문 상해판 198개 호 원본은 연세대 소장 177점과 신청자료 170점을 제외하고는, 독립기념관 16개 호(1~5, 10~12, 14, 17, 24, 117, 133, 187~189호) 소장에 불과하여 두 기관이 소장한 자료의 희소성이 매우 높음

7) 등록가치의견

-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가치와 존재 가치를 실증하는 1차 사료로 전시, 교육, 학술 연구의 귀중한 자료임
- 한국독립운동사는 물론 민주발전사, 근대 신문사 연구의 1차 자료임
- 독립운동시기 시와 소설 등 근대 문학사와 사상사 연구의 1차 자료임
- 이 같은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신문 상해판 원본 총 198점 가운데 170점 이상 보유한 기관은 연세대와 신청기관 두 기관에 불과한 희소성이 있음

8) 참고문헌

- 정진석, 「상해판 독립신문에 관한 연구」 『산운사학』 4, 1990.
- 최기영, 「상해판 독립신문의 발간과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 30년사』, 국학자료원, 1999.
- 김희곤,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3(상해시기), 독립기념관, 2009.
- 김용달, 『대한민국임시정부 그 100년의 역사』, 역사공간, 2019.

9)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명칭으로는 ‘독립신문 상해판’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1) 현상

- 중국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은 1919년 8월 21일 창간호가 발간되어, 1926년 11월 30일 제198호로 폐간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독립신문』 상해판 전체 198개 호 가운데 170개 호가 완벽한 형태로 소장하고 있음(창간호부터 마지막호 포함). 특히, 기존에 발굴되지 않았던 5개 호(제177호, 제178호, 179호, 180호, 195호)를 소장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은 2015년 ‘통문관’으로부터 공개 구입하였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2016년 연세대 소장본, 독립기념관 소장본, 통문관 소장본 등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호수를 묶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자료집’ 제5호로 『독립신문』을 발간하였음. 현재 『독립신문』 상해판 가운데 결호는 제40호, 제125호, 제190호, 제191호 4개호가 발굴되지 않음. 국가등록문화재 제510호로 등록되어 연세대 도서관에 소장된 『독립신문』 상해판은 창간호가 아래 부분이 망실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위에 언급된 5개호를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은 2016년 11월 7일 클리닝, 접합 및 보강, 결손부 메움 등 보존처리를 하여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음

2) 내용 및 특징 :

- 『독립신문』은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임시정부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며, 일제 식민지배의 실상을 고발하는 등 한국독립운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자료임. 『독립신문』은 국내외 동포들에게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한문으로 발행되었으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문판도 별도로 간행되었음
- 『독립신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로 중국 상하이에서 1919년 8월 21일 창간호가 국한문신문으로 발행되어 1926년 11월 30일 제198호로 폐간되었음. 그리고 자매지로 1924년 7월부터 약 40호가 간행된 중문판과,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충칭(重慶)에서 중문판 『독립신문』 7호까지 발간되었음
- 연세대 중앙도서관에서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김봉준 후손으로부터 『독립신문』 상해판 전체 198호 가운데 21개 호가 빠진 것을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었음. 연세대 소장본은 1969년 중앙문화출판사에서 2권으로 영인하였으며, 1985년 독립기념관 건립을 준비하면서 다시 영인 발간한 바 있음
- 연세대 소장본 『독립신문』 창간호는 아래 부분이 찢어져 망실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창간호는 완벽한 상태로 소장되어 있음. 독립기념관에도 창간호를 소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본에 비하여 상태가 좋지 못함
- 『독립신문』 상해판은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70개 호, 연세대 중앙도서관에 177개 호, 독립기념관 17개 호(호외 1호 포함),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에 5개 호 등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음

3) 문헌자료

- 최기영, 「상해판 『독립신문』의 발간과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 최기영, 「『독립신문』 해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소장자료집 5, 2016.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독립신문』, 2016.

4) 기 타

- 연세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독립신문』 상해판이 국가등록문화재 제510호로 등록되어 있음(전체 198호 가운데 21개 호가 빠짐). 그리고 독립기념관에도 『독립신문』 상해판의 창간호를 비롯한 5개 호를 소장하고 있고,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에는 대한인국민회에서 자료 가운데 5개 호의 『독립신문』을 소장하고 있음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독립신문』 상해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로 임시정부의 활동,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 등 독립운동 전반에 관한 풍부한 내용을 실고 있어 독립운동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료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은 1919년 창간호부터 1926년 제198호까지 170개 호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발굴된 5개 호를 포함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현재 등록문화재 제510호로 지정된 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과 함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 170개 호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야만 한다고 판단됨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은 2016년 11월 7일 클리닝, 접합 및 보강, 결손부 메움 등 보존처리를 완료함에 따라 별도의 보존 정비는 필요하지 않음

6. 「안중근 재판 공판 관련 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안중근 재판 공판 관련 자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중근 재판 공판 관련 자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9.11.27.)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7.22.)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크기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	1건 1점	19.2×28cm	1910년	안중근의사 숭모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탁유물
안중근 재판 재판회 공판방청권	1건 1점	10.2×7cm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11.27.) : 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0.7.2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7.22.)
 - 안중근 재판 공판 관련 자료는 1910년 일본 기자인 고마쓰 모토코(小松元吾)가
 - ① 안중근 공판을 참관하고 그 장면을 묘사한 스케치(4면)가 실려있는 화첩(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과 ② 당시 발부받은 공판 방청권임. 현재 안중근 재판과 관련된 사진들이 남아 있으나 해당 스케치와 공판방청권은 유일한

자료로 사실적인 가치를 가지며, 당시 한국인에 대한 국제적인 재판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됨.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 ○ ○ ('20.7.22.)

- 『안봉선 풍경 부 만주화보』와 『공판방청권』은 안중근 의사 재판을 역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됨. 『안봉선 풍경 부 만주화보』는 안중근 의사 공판 현장을 상세하게 그린 것으로, 재판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며, 『공판방청권』은 안중근 의사 재판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로서,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다만 『안봉선 풍경 부 만주화보』는 안중근 의사 재판을 취재하던 일본인 기자가 그렸다는 점, 『공판방청권』도 또한 일본인 기자가 취재를 위해 발급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함

○ ○ ○ ○ ('20.7.22.)

-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와 ‘공판방청권’은 일본 통신원인 소송원오(小松元吾)가 소지했던 공판방청권 1매와 그가 먹으로 그린 안동(단동)에서 봉천(심양)에 걸친 풍경과 민속 그림 화첩 1책임. 공판방청권의 경우 입장권에 불과하여 역사적 가치는 크지 않지만 동종의 자료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은 있음.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는 그와 유사한 내용의 사진이 여러장 있어 희소성이 낮고 생동감과 현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 문화재 등록에 있어서 제작·사용주체 혹은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 여러 면에서 우수성과 희소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해당 유물은 역사성, 희소성, 민족성 등에서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등록범위 검토와 관계 전문가 추가조사

○ 출석 11명 / 원안가결 2명, 보류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안중근 재판 공판 관련 자료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 소유자 : 안중근의사숭모회
4. 조사자 의견 ('20.7.22.)

<○○○>

1) 개요

- 『안중근 재판 공판 관련 자료(安重根 裁判 公判 關聯資料)』는 ①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安奉線風景 附 滿洲畫報)와 ②안중근재판 제4회 공판방청권(安重根裁判 第四回 公判傍聽券) 등 두 점임.
- 1910년 일본 기자인 고마쓰 모토코(小松元吾)가 안중근 공판을 참관하고 그 장면을 묘사한 스케치가 실린 화첩과 당시 발부받은 공판 방청권임.
- 이 유물은 화첩을 제작하고 공판에 직접 참석하였던 고마쓰 모토코의 후손인 고마쓰 료(小松亮)가 2016년 안중근의사숭모회에 기증하였고, 숭모회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탁한 환수문화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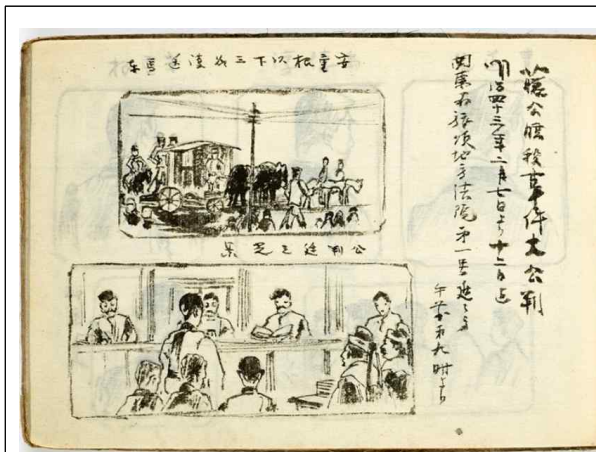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및 특징

- ①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安奉線風景 附 滿洲畫報)
 - 수묵화가 그려진 비단 표지의 가운데는 종이에 찍은 「小松元吾」라는 음각의 방형 인이 붙어 있고, 좌측에는 붉은 색의 제침이 있음. 제침에는 “明治 四十二年 夏 安奉線風景 附 滿洲畫報”라고 묵서되어 있음. 앞표지 공지에는 「小松藏書」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음. 첫 번째 스케치는 1909년 5월 3일에 만주를 건널 때의 산하풍경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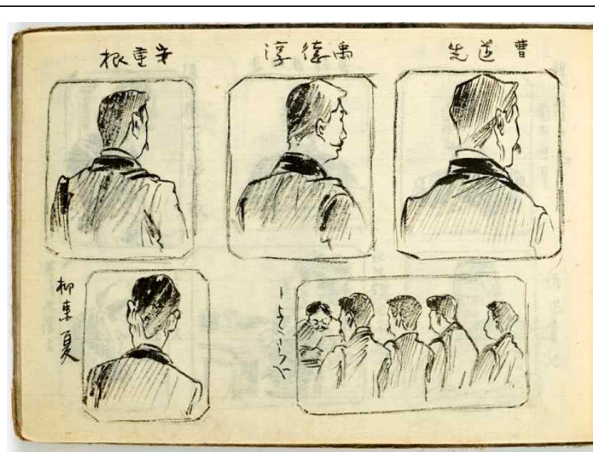
<그림1>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의 표지

- 안봉선(安奉線)은 안동(安東, 현재 丹東)에서 봉천(奉川, 현재 瀋陽)까지의 철도로 한국에서 남만주철도로 연결되는 지선임. 이 화첩의 주인이자 그림을 그린 사람은 고마쓰 모토코(小松元吾, 1875~1956)이며, 그의 자(字)는 리소우(利宗)임. 그래서 고마쓰 리소우(小松利宗)로도 알려져 있는데, 방청권 뒷면에도 “小松利宗”이라고 써 놓았음. 그는 미국에 건너가서 자신이 그린 우키요에(浮世繪)를 팔면서 생활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최후의 우키요에 화가로 알려져 있음.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다롄(大連)의 요동신보(遼東新報)에 입사하였음. 이때 안중근 재판을 방청하고, 법정의 풍경을 스케치하게 된 것임.
- 화첩 이름 중의 “부 만주화보”(附 滿洲畫報)는 만주화보를 덧붙였다는 뜻임. 이 화첩에 수록된 만주화보는 3장으로 자신의 그림을 신문에서 오려서 붙인 것임. 이 화보 3장은 그가 요동신보에 재직할 때 발행된 신문에서 그림부분만을 오려서 붙인 것이므로 만주화보 3장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음.
-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 중에서 안중근 재판 현장을 스케치한 4장(4면)이 있음. 안중근 외에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의 뒷모습과 일본인 재판관계자(재판장, 검찰관, 통역관, 서기, 변호사)와 더글라스 변호사, 한국인 변호사들, 기자들도 그려져 있음. 서서 답변하는 안중근의 모습도 있음. 마지막 스케치 끝 부분에 “以上 43年 2月 10日 夜 旅順之客舎”라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어 놓았는데, 이 날은 4회 공판이 있던 날임. 그러므로 이 그림은 4회 공판을 참관한 그 날 밤에 숙소에서 그린 사실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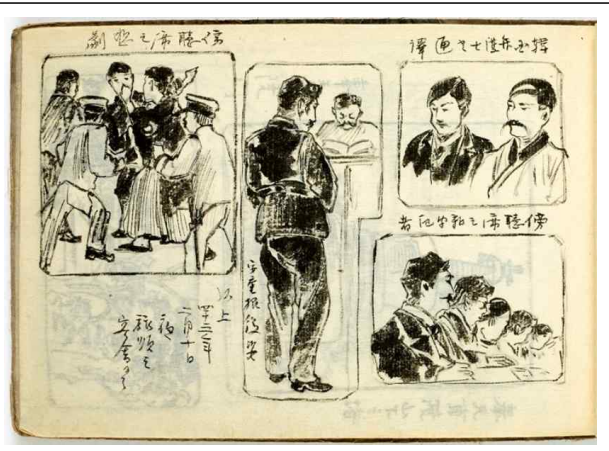


藤公(伊藤博文)暗殺事件大公判
 明治43년 2월7일부터 12일까지
 관동 여순지방법원 제1호 법정

안중근이하 3명 호송(위)
 공판정 광경(아래)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재판장, 변호사(더글러스), 통역관, 서기, 검찰 등

안중근 뒷모습(가운데), 방청석
 이상 43년(1910) 2월 10일 밤에 여순의 객사에서

<그림2>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에 보이는 안중근 공판관련 스케치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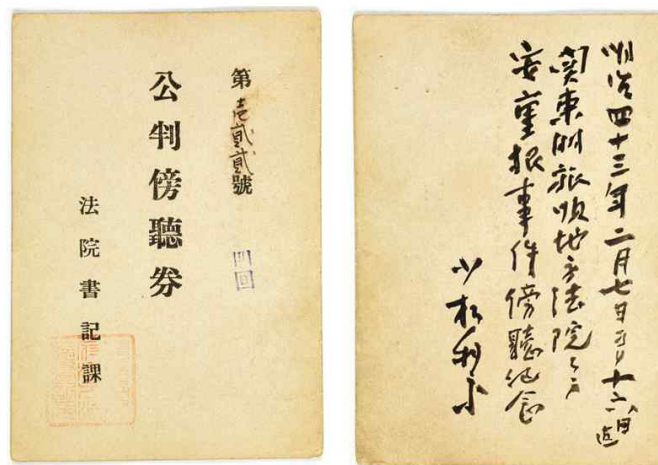
- 이 화첩에는 안중근 공판 관련 스케치 4장 이외에도 신의주와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한인들의 스케치도 4장이 있어 당시 이 지역의 한인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음.



<그림3> 화첩에 보이는 한인과 풍경

② 안중근재판 제4회 공판방청권(安重根裁判 第四回 公判傍聽券)

-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뤼순 소재의 일본 관동 법원에서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6차에 걸쳐 이루어졌음.
- 공판방청권에는 법원서기과에서 발급된 제122호임이 명기되어 있음. 또 우측에는 “四回”라는 청색의 고무인이 찍혀 있어서 고마쓰가 4차례의 재판에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뒷면에는 고마쓰가 “명치 43년(1910) 2월 7일부터 16일까지 관동 여순지방법원에서 안중근 사건 방청 기념 小松利宗”이라고 적어 놓았음.



<그림4> 『공판방청권』 전후면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기탁 관리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향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비교대상 기 등록문화재는 없음.

7) 등록가치의견

- 안중근 재판과 관련된 사진들이 남아 있으나 고마쓰 모토코(小松元吾)의 재판 현장의 스케치와 공판방청권은 유일한 자료로 사실적인 가치를 가진 중요한 자료로 판단됨.
- 환수된 문화재로 당시 한국인에 대한 국제적인 재판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귀한 회화 사료임. 그런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안중근 재판 공판 관련 자료(安重根 裁判 公判 關聯資料)』는 『안중근 공판 관련 자료(安重根 公判 關聯資料)』
- ①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安奉線風景 附 滿洲畫報)는 “부 만주화보”를 삭제하고 “안봉선풍경”으로 해도 무난할 것임.
- ② 안중근재판 제4회 공판방청권(安重根裁判 第四回 公判傍聽券)은 “안중근 제4회 공판방청권”
- 재판과 공판을 동시에 명칭에 넣는 것과 공판만을 넣는 것이 적절한 지를 살필 필요가 있음.

9) 참고문헌

- 『울림 안중근을 만나다: 광복70주년기념 특별전』, 2015.
- 『동포에게 고함: 안중근 옥중유묵』,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신소장품 특별전 도록 (2017.3.23.-5.28),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7.
- 김호일, 『대한국인 안중근』, 눈빛, 2010.
- 박환,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 안중근』, 선인, 2013.

<○○○>

1) 현상

- 『안봉선 풍경 부 만주화보(安奉線風景 附 滿洲畫報)』과 「공판방청권(公判傍聽券)」은 안중근 의사의 공판을 방청한 일본 도요신문사(土陽新聞社)의 고마쓰 모토코(小松元吾) 기자의 후손들이 2016년 안중근의사충모회에 기증한 것임
- 『안봉선 풍경 부 만주화보』는 고마쓰 모토코 기자가 안중근 의사의 재판을 전후 하여 만주 일대를 여행하면서 그린 화첩으로, 고마쓰 기자는 안중근 의사가 1910년 2월 10일 일제의 뤼순고등법원에서 제4회 공판을 받을 당시 광경을 4쪽에 걸쳐 스케치 하였음
 - 1쪽에는 안중근의사가 호송마차를 타고 등장하는 것부터 같이 재판을 받는 안중근의 동지들 뒷모습과 일본인 재판 관계자, 변호사 등 주요 인물들을 그렸음
 - 2쪽에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하여,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의 뒷모습 등 방청석을 그렸음
 - 3쪽에는 안중근 의사 재판의 재판장, 검사, 통역관, 변호사 등의 인물이 스케치되어 있음
 - 4쪽에는 안중근 의사 재판 한국인 변호사와 통역, 재판을 받는 안중근 의사의 뒷모습,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 재판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음
- 「공판방청권」은 안중근 의사 재판이 열린 뤼순법원 서기과(書記課)에서 제122호로 발급된 것임. 이 방청권의 뒷면에 고마쓰 기자가 “명치(明治) 43년 2월 7일부터 6일 동안 관동주 여순지방법원에서 안중근사건 방청 기념. 소송이소(小松利小)”라고 기재되어 있음

2) 내용 및 특징

-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두에서 대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하는 의거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제의 뤼순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음. 안중근 의사는 법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을 낱낱이 열거하며 의거의 정당성을 논파하였으나, 일제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3월 26일 뤼순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음
- 『안봉선 풍경 부 만주화보』 : 고마쓰 모토코 기자가 재판의 진행 과정에 대해 붓으로 현장을 4쪽에 걸쳐 스케치 한 것임
 - 안중근 의사 재판을 위한 마차 호송장면은 이미 사진자료로서 널리 알려져 있음. 마차 호송장면은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닌가 판단됨
 - 안중근 의사 공판 현장을 기자로서 빠르게 그린 것이지만, 매우 상세하게 인물을 묘사하고 있음. 공판 현장을 스케치한 것은 자료적 가치가 있음
- 「공판방청권」 :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방청권을 발급하여 인원을 제한하려고 하였음. 고마쓰 모토코 기자는 안중근 의사 재판의 제122호 공청권을 발급받아, 재판장에 들어가 공판과정을 스케치할 수가 있었음

3) 문헌자료

- 안중근 자료집 편찬위원회, 『안중근 자료집』, 채륜, 2017.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안봉선 풍경 부 만주화보』와 「공판방청권」은 고마쓰 모토코 기자의 후손이 기증한 것으로, 안중근 의사 재판을 역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됨
 - 『안봉선 풍경 부 만주화보』는 안중근 의사 공판 현장을 상세하게 그린 것으로, 그림을 통해 재판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됨
 - 「공판방청권」은 안중근 의사 재판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로서,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안봉선 풍경 부 만주화보』는 안중근 의사 공판 현장을 스케치하였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지만, 안중근 의사 재판을 취재 하던 일본인 기자가 그렸다는 점에서는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을런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공판방청권」도 또한 일본인 기자가 취재를 위해 발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안봉선 풍경 부 만주화보』와 「공판방청권」은 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존 정비는 필요하지 않음

<○○○>

1) 개요

- 안중근 ‘공판방청권’과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는 일본 토양신문사(土陽新聞社) 통신원인 소송원오(小松元吾)가 소지했던 공판방청권 1매와 그가 먹으로 그린 안동(단동)에서 봉천(심양)에 걸친 풍경과 민속 그림 화첩 1책임

- ‘공판방청권’은 안중근 의사 재판이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여순 관동지방법원에서 열리자, 토양신문사 통신원 소송원오가 공판정에 입장하기 위해 이명인 ‘소송이종(小松利宗)’ 명의로 법원서기과에서 교부 받은 것임
-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 속에는 1910년 2월에 그린 안중근 의사 공판 광경 소묘 4매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음
 - ① 안중근 의사가 마차를 타고 법원으로 호송되어 재판 받는 광경
 - ② 안중근 의사와 그 동지들인 우덕순·조도선·유동하의 뒷모습
 - ③ 재판장을 비롯한 검사와 변호사·통역·서기 등 재판 관련 인물
 - ④ 서 있는 안중근 의사와 방청석 광경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공판방청권’ 앞면에는 ‘제122호’라는 방청권 번호와 참관 가능 횟수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4회’라는 표기 그리고 ‘법원서기과’라는 발급부서와 관인이 찍혀 있음
- ‘공판방청권’ 뒷면에는 “명치 43년 2월 7일부터 16일까지, 관동 附 여순지방법원에서 안중근사건 방청 기념, 소송이종”이라고 직접 써놓은 글자도 보임
-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 속의 안중근 공판 관련 소묘 4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안중근 의사가 마차를 타고 법원으로 호송되어 재판 받는 광경 그림에는, ‘안중근 이하 3명 호송 마차’와 ‘공판정 광경’의 그림과 ‘이등공 암살 사건 대공판, 명치 43년 2월 7일부터 12일까지, 관동부 여순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오전 제9시부터’라는 글씨가 쓰여 있음
 - ② 안중근 의사와 그 동지들인 우덕순·조도선·유동하의 뒷모습 그림에는, 이들 4인의 상반신 뒷모습이 그려져 있음
 - ③ 재판장을 비롯한 검사와 변호사·통역·서기 등 재판 관련 인물 그림에는, 진과(眞鍋) 재판장을 중심으로 구연(溝淵) 검찰관, 한국통감부에서 파견된 원목(園木) 통역, 부과(浮巴) 서기, 수야(水野)와 겸전(鎌田) 두 일본인 변호사 그리고 더글라스 영국인 변호사 등 6인의 상반신 모습이 그려져 있음
 - ④ 안중근 의사와 방청석 광경 그림에는, 서 있는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한국변호사와 통역, 방청석의 기자, 소란스러운 방청석 모습과 “이상 43년 2월 10일 夜 여순의 객사에서”라는 글씨가 쓰여 있음
- 이로 볼 때, 안중근 공판 관련 소묘는 소송원오가 1910년 2월 7일 제1회 공판부터 2월 10일 제4회 공판까지 네 번 참관하고, 이 광경을 매회 1매씩 모두 4장으로 그린 것으로 판단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안중근 ‘공판방청권’ 1점과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 속 안중근 공판 관련 소묘 4점의 원형 보존 상태는 매우 우수함
- 하지만 100년이 지난 자료이므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장기적으로는 보존 처리가 필요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안중근 ‘공판방청권’ 1점과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 1책은 향은 향습화된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 수장고에 위탁 보관되어 잘 관리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안중근의사기념관과 독립기념관 등 독립운동 관련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전시, 교육,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6) 문화재 가치와 등록가치 의견

- 안중근 ‘공판방청권’은 단지 안중근 의사의 공판정에 입장하여 방청할 수 있는 입장권에 불과하여 역사적 가치는 크지 않지만, 동종의 자료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은 있음
- 안중근 공판 관련 소묘는 그와 유사한 내용의 사진이 ‘만주일일신문’ 보도와 ‘더 그래픽(THE GRAPHIC)’ 잡지 그리고 ‘이등박문암살사건’ 등 문서에도 여러 장 수록되어 있어 희소성이 낮고, 사진에 비해 생동감과 현장성이 떨어짐
- 겨례의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문화재는 그 제작주체나 사용주체 혹은 역사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 등 여러 면에서 우수성과 희소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런 면에서 안중근 공판방청권과 안중근 공판 관련 소묘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 역사성과 희소성 그리고 민족성 등 여러 면에서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7) 참고문헌

- 한성민, 「일본정부의 안중근 재판 개입과 그 불법성」 『사학연구』 96, 2009.
- 최홍규, 『안중근 사건 공판기』, 정음사, 1974.
- 윤병석, 『안중근 문집』, 독립기념관, 2011.
- 김홍식,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 서해문집, 2015.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신청 자료의 명으로 ‘안중근 재판 공판 관련 자료, ①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 ② 안중근 재판 제4회 공판방청권’라는 명칭은 자료의 실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함
- 원 자료의 제목이나 그것을 약간 바꿔 자료 명칭으로 사용하였으나,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표현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없음
- 오히려 ‘안중근 의사 공판방청권’과 ‘안중근 의사 공판 광경 소묘’ 정도가 어울릴 것 같음

7. 「이병태 일기(내가 겪은 4·19 데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이병태 일기(내가 겪은 4·19 데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이병태 일기(내가 겪은 4·19 데모)」는 ‘4·19 혁명 분야 문화재 등록 추진 자문회의’(’20.1.20.)를 통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5.20.)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이병태 일기 (내가 겪은 4·19 데모)	1건 1점	21.5×15.3cm	1960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0.1.20.) : 4·19 혁명 분야 문화재 등록 추진 자문회의
- (’20.5.20.)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20.5.20.)

- ‘이병태 일기’는 1960년 4월혁명을 증언하는 자료로, 직접 시위에 참여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의 시각에서 4.19 당일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어서 가치가 있음. 그러나 4월 19일 저녁에 기록된 일기라고 규정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길며, 군데군데 사후에 수정된 부분이 있고, 문장의 시체나 톤이 어색한 곳이 발견되는 등 작성일이 명확하지 않아 통상적 의미의 일기라기보다는 4·19 당시 경험을 기록한 수기에 더 가까움.

- 4월혁명 당시에 기록된 일기류는 이와 유사한 가치를 지닌 기록물들이 추가로 발굴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당 유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타 자료와 비교한 후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 ○ ○ ('20.5.20.)

- '이병태 일기'는 4·19 혁명 당시 동성고 3학년 학생이던 이병태가 자신이 겪은 내용을 공책에 필사한 것으로, 서울대 학생들과 더불어 시위에 참여한 내용, 경무대 앞까지 행진하면서 벌어진 상황 등의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하였음.
- 해당 유물을 일기로 보는가 수기로 보느냐에 따라 등록 가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4·19 당일의 일기로 본다면 개인이 겪은 생생한 경험을 기록한 기록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다른 일기들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수기로 볼 경우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수기의 원본 여부에 따라 가치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 ○ ('20.5.20.)

- 해당 유물은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볼 때, 기록 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상당하다고 생각됨. 내용 역시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의 시각으로 4·19의 현장이 생생하게 재현되었다는 점, 이후 동성고의 校史 서술의 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음.
- 다만, 문화재가 갖는 특수한 희소성을 감안하면, 다른 유사 기록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예를 들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이재영 일기'와 비교 시 적어도 형식과 분량적인 면에서 '이재영 일기'가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4·19 관련 일기·수기 및 5·18 일기의 문화재 등록까지 생각해야 하는 문제임.

마. 의결사항

○ 보류

- 유사사례 비교검토 및 추가 조사

○ 출석 11명 / 보류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이병태 일기(내가 겪은 4·19 데모)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 소유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4. 조사자 의견('20.5.20.)

<○○○>

1) 현상

- 이 기록물은 1960년 4.19혁명 당시 동성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이병태 학생이 쓴 것으로 일기 또는 수기라고 볼 수 있음. 자신이 2014년 4월 9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증하였음. 1960년 4월 19일 또는 그 직후에 이병태가 작성한 기록물로 총28쪽으로 되어 있는 노트임.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은 19쪽에 달함. 노트의 앞 겉표지에 '내가 겪은 四·一九, 데모 죽을 뻔한 4월 19일의 오후'라고 쓰여 있음.

2) 내용 및 특징

- 학우들과 혁명에 참여하여 겪은 충격사건 등이 세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의 움직임에 고무되어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움직인 것으로 나타나 있음. 여러 차례 지우고 쓴 흔적이 남아 있음.

3) 기타

- 이 기록물은 2014년 4월 9일 이 기록물을 작성한 이병태 선생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1960년도에 쓰여진 일기, 사진, 전단, 졸업앨범 등 4점을 동시에 기증할 때 포함된 것임.
- 4월혁명을 증언할 수 있는 일기나 수기는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인정되나 차후에 이와 유사한 일기류가 추가로 수집될 수 있고, 자료의 성격상 완전성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문화재 지정을 당분간 유보하고 이와 유사한 자료 수집을 시도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문화재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됨.

4) 문화재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자료는 1960년 4월혁명을 증언하는 자료로, 직접 시위에 참여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의 시각에서 4.19 당일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어서 가치가 있음. 이 고등학교는 4월혁명 당시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기록물은 19쪽에 이를 정도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진정성을 가진 가치 있는 자료로 사료됨.

- 그러나 이 자료는 작성일이 명확하지 않음. 4월 19일 저녁에 기록된 일기라고 규정하기에는 문장의 시제나 톤이 어색한 곳이 발견됨. 예컨대 처음 도입부에 “아무렇지도 않은 평상시의 날이었다”라는 표현은 4월 19일 낮의 흥분된 경험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쓰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됨. 또한 이 기록은 거사 당일에 19쪽에 이르는 분량을 다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길며, 군데군데 사후에 수정된 곳이 보임. 또한 글의 시제가 일관되어있지 않음.
- 통상 일기는 매일 또는 가끔씩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연속적으로 기록한 것을 의미함. 전형적인 일기는 그 전날이나 이튿날의 기록이 한꺼번에 있는 것인데, 이 기록물은 4월 19일 하루분만 노트에 적혀 있으므로 통상적 의미의 일기라기보다는 4월 19일의 경험을 기록한 수기에 더 가까움. 만약 4월 18일분이나 20일분의 기록이 별도로 있다면 이 자료는 확실히 19일에 기록된 일기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날짜의 기록이 없어서 4월 19일 당일에 기록된 일기라고 확증하기 어려움.
- 이 자료는 4월혁명 50주년인 201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편찬한 <4월혁명 Archives> 제5집에 수록되었음. 이 자료집은 선언이나 성명, 수기류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개인기록으로 유서, 일기, 편지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기류는 총 11편이었음. 공식기관이 발행하는 자료집에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이 자료의 진정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자료집에 수록된 한성여중생 진영숙의 편지(유서)에 비하면 가치가 떨어짐.
-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희귀성이 입증되어야 함. 4월혁명 당시에 기록된 일기류를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수집한다면 이와 유사한 가치를 지닌 기록물들이 추가로 발굴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또는 문화재청 등 공적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 후 수집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와 견주어본 후에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4월 혁명 전단에 대한 판단
 - 이 전단은 “경찰은 하생에게 폭력을 금하라. 민주주의를 지킬 뿐이다! 무저항주의! 동성 학생을 석방하라!”는 4줄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음. 문장의 길이나 전단종이의 형태로 볼 때, 한 장의 종이에 현재와 같은 문장을 3-4개씩 인쇄한 후 각 부분을 잘라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현재의 전단은 하단이 약간 비스듬하게 절단되어 있고, 칼질이나 가위질이 두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이 전단의 문장은 가로로 쓰여진 것인데 반해 이병태라는 자신의 한자 이름이 우측 하단에 세로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배포될 유인물 위에 자신을 이름을 써 넣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유인물 위에 자신의 이름을 나중에 써 넣은 것일 수도 있다고 사료됨. 후자라면 원본이 자신에 의해 약간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4.19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이 자체를 별도로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너무 소략한 자료라고 판단됨. 위의 기록물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어서 특별한 의견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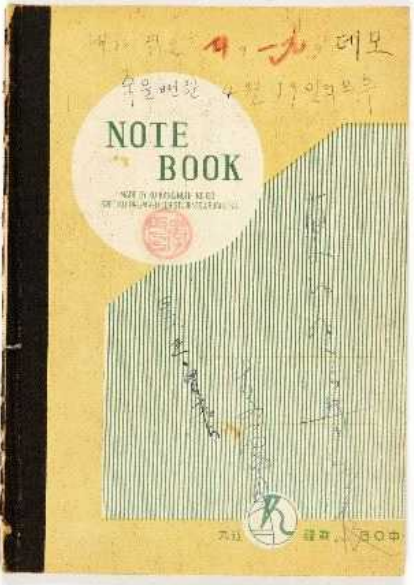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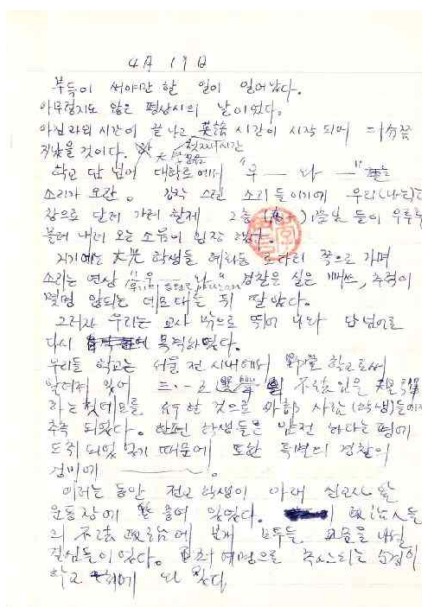
1) 현상

- 4.19 때 혁명에 참가한 동성고 학생 이병태가 21.5x15.3cm 크기의 공책에 필사로 적은 것으로, 공책 등이 약간 낡았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함.
- 노트는 전체 28쪽짜리이나, 표지를 제외하고 일기가 적힌 면은 18쪽임.

2)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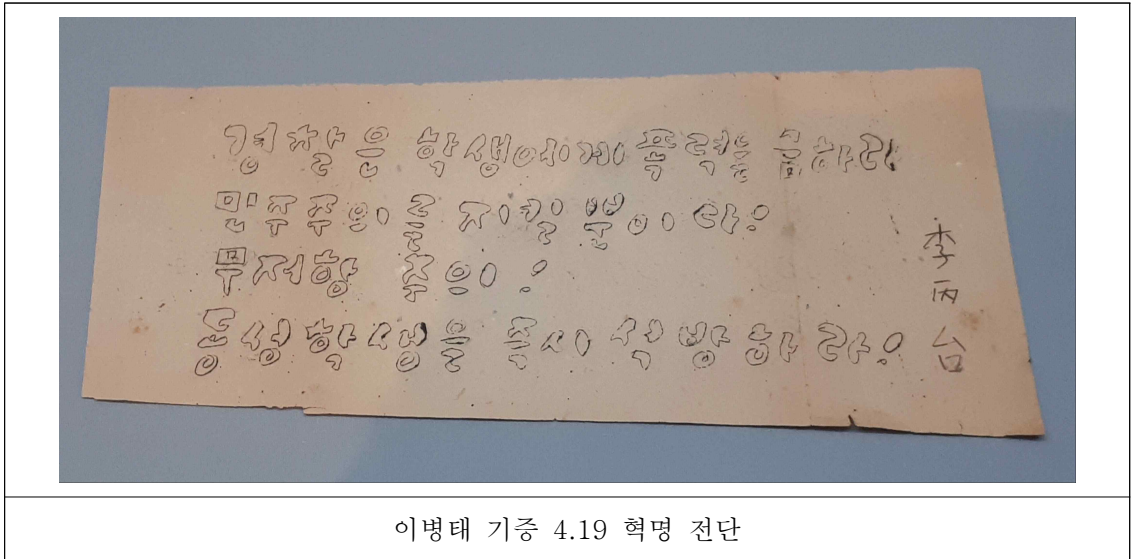
- 1960년 4월 19일 당시 동성고 3학년 학생이던 이병태가 자신이 겪은 4.19에 관해 작성한 것임. 총 28쪽의 노트 18쪽에 자필로 기록되어 있음.
- 이병태가 4·19 당시 동성고에서 제작해 배포한 4·19 혁명 전단지, 동성고등학교 졸업앨범, 초등학교 1학년 봄 소풍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증하여,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유물번호 수증1251)에서 소장하고 있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기증자료관] 설명에 따르면 기증자 이병태(1942-2016)는 동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입학하였으며, 1973년 광화문에 이병태 치과를 개업하여 2016년 7월 9일 심근경색으로 별세할 때까지 운영하였다고 함. 그는 치과의사이자 수필가였고, 라디오 DJ로도 활약하였으며, 2014년에는 치의학 관련 16만 어휘를 수록한 『치의학대사전』을 발간하였음. 기증자는 4·19혁명 정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기록을 기증하였다고 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기증자 구술에 따르면 “4월 19일날 경무대 앞까지 갔다 와서 저녁에 집에 와서 만년필에 잉크를 찍어가며 쓴 일기”(2015.5.28. 기증 후 구술)라고 증언함.
- 노트 표지의 상단에 “내가 겪은 四·一九 데모, 죽을 뻔한 4월 19일의 오후”라고 제목이 쓰여 있으며, 노트 중간의 흰 부분에 “李炳泰”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데, 이 인장은 노트의 글 부분에도 군데군데 찍혀 있음. 아래쪽에 흘려쓴 글씨가 있으나 판독이 어려움.
- 내용 제1쪽에는 일기의 형식으로 4월 19일이 맨 위에 적혀 있고, 그 아래로 4월 19일에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담담하게 기록하였음. 4월 19일 아침 학교에서부터, 동성고가 혜화동에 있었던 만큼 서울대 학생들과 더불어 시위에 참가한 내용, 종로 4가를 거쳐 경무대 앞까지 행진하면서 벌어진 상황, 시위를 지키던 경찰들과 소통한 내용, 경무대 앞에서 총이 발사된 이후의 상황 등 당일 경험한 내용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
- 시작은 “부득이 써야만 할 일이 일어났다. 아무렇지도 않은 평상시의 날이었다. 아침과의 시간이 끝나고 첫째시간 영어 시간이 시작되어 이십분쯤 지났을 것이다. 학교 담 넘어 대학로에서 ”우- 와-“ 하는 소리가 요란. 갑작스런 소리들이기에 우리(나는)는 창으로 달려가려 할 제 2층(고 1)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내려오는 소음이 굉장했다.”로 시작하여 동성고의 학생 특성이 “야당 학교”임을 밝히고, 전교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였다가 교문을 나섰으며, 한편 등사실에서 결의문과 구호를 등사하였으며, 이병태 본인은 백지에다 적십자를 그려 교문을 나섰음을 적었음. 이때 시각이 11시 10분이었음을 밝혀 매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있음.

- 중간중간에 퇴고의 흔적이 보임. 1쪽에“英語 시간”글자 앞에 “첫째 시간”이라는 단어를 끼워넣는다던가, ‘대학로’는 처음에는 한글로 쓰고 그 위에 한자를 병기함. 2쪽에 “구호프린트를 ○○하면서”라고 쓴 것에서 “○○하면서”를 지우고 “뿌리면서”로 고친다던지, 글을 손본 흔적이 여러 군데에 있음. 3쪽에는 고 2 학생들의 연행 현황에 대해 말풍선 모양을 그려 추가로 적어넣었음. 사실적인 기술만이 아니라, 상황과 사태에 관한 본인의 소회도 군데군데 들어 있음.
- 7쪽에 “위대하신 李 大統領 각하의 들레에 간신배들아 자진해서 물러나라”는 언급으로 보아 4월 26일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이어 “개인의 영화를 위해 전 국민의 피땀을 아니 살과 뼈를 값아 먹겠느냐? 이러함에 현 정부 아니 대한민국에 반기를 들러 함은 추호도 없음을 저 푸른 하늘에 굳게 맹세하며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 국민의 안녕, 행복을 추구하~ ”(문장을 마무리하지 않음)
- 동성고가 고등학교로서는 가장 먼저 시청 앞 광장에 도착했다는 점 등 동성고를 여러 번 언급하고 있음. 12-13쪽에서 경무대 앞에서 총이 발사되었을 때 “우리 동성의 학도는 용감하다. 그러한 총탄의 세례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우리 동성의 학생은 엎드려 무저항 데모를 계속, 각급 대학의 학생들은 도주하고 말았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음.

 <p>증1251.</p>	
<p>이병태 “내가 겪은 4.19 데모” 기록 표지</p>	<p>“내가 겪은 4.19 데모” 본문 1쪽</p>

<p>날씨는 맑고 무렵이다. 어느덧 골로 다가서서 세월이 흘러갔다.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의 발구멍 앞다. 우리들은 외치고 있었다. 노래는 부르며 경찰은 더 힘차게 민주주의 깃발을 이빨 에 앞다. 민주주의 깃발은 우리를 학생은 전면에서의 위험을 몰려하였다. 경찰은 학생에게 폭력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때문이다. 무리함 주의로 안전하게 많은 해를 학생 학생을 즉시 석방하라 !! 해산 프나카드에는 무 저항주의 데모 민주주의 수호</p> <p>그러한 현행해간 관생들은 高 = 학생들로서 고압 선생님의 관행으로써 석방. 복 그대의 말이 아니라 무려 무리 당한 데로 갈겨 잔혹했다면 살해한 죄인 하였다. 이틀 역시 여기 저기에 사물한 이들이 현행해가 언행 하였으며 서울대학 학생들 이 데모를 하고 있었으며 경찰들의 불행이 되어 된 불행이 온 판에 진로 경찰에 대한</p>	<p>우리 학생들은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리는 듣고 우리의 슬픔을 듣고 분노 분노 있던 모든 사람이 공명하게 울었다. 경찰은 화를 냈다. 총부리를 가리키려는 심정이었다. 현행해가 무서운 우리만 생각하지 않다. 우리 대학은 폭력, 정권에서 많은 해를 어니한 학생도 그날 죽진 않았다.</p>
<p>“내가 겪은 4.19 데모” 본문 3쪽</p>	<p>“내가 겪은 4.19 데모” 본문 18쪽</p>

- 이병태는 이것이 당일 저녁 집에 와서 기록한 것이라고 구술하였는데, 이 기록이 4월 19일 당일에 기록한 일기인지가 확실치 않음. 일기는 매일 매일 적는 것이기 때문에 4월 18일, 4월 20일 등 앞뒤의 날짜 일기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나, 앞뒤 날짜의 일기는 없고 4월 19일의 일만 기록되어 있음. 또한 문장 방식이 일기라기 보다는 회고하는 방식으로 보이는 곳도 많음. 총상을 당한 동성고 학생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보니 우리 동성에도 死者가 났다. 찢어진 바지에 흰살 흰 근육, 정의를 위한 피. 틀림없이 쓰러진 한 아이가 내 반 학생이다. 이때 심정 어떠했으리요.”16쪽에서는 친구의 죽음에 소리내 울면서 외친 내용을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내 친구 여럿이 총탄에 죽었다.” “이놈들아!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대학생이냐! 도망을 가구”등으로 쓰고 있어, 현장감을 살리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현 등은 일기체라기보다는, 회고하는 방식으로 여겨짐. 표지에도 “내가 겪은 四·一九 데모, 죽을 뻔한 4월 19일의 오후”라고 쓰여 있어서 이것이 일기로 적은 것이라기보다, 훗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적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이 내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회에서 펴낸 『4월혁명사료총집』 제5책(서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에 수록되어 있음. 여기에는 4월 혁명 당시의 사태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기록물로서, 마산 의거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기 등 11편의 하나로 수록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이병태가 함께 기증한 전단지도 소장되어 있음.(소장번호 수증 1250) 전단지는 12.5x26.5cm 크기로 동성고에서 등사하여 시위 때에 뿌린 것이라고 함. 내용은 “경찰은 학생에게 폭력을 금하라! 민주주의를 지킬 뿐이다! 무저항주의! 동성학생을 즉시 석방하라!”라고 되어 있으며, 오른쪽에 만년필로 필사로 “李丙台”라고 쓰여 있음.



3) 문헌 및 관련 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회 편, 『4월혁명 사료총집』 제5책 (선언·성명·수기), 서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4)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이병태가 기록한 「내가 겪은 4.19 데모」를 일기로 보느냐 수기로 보느냐에 따라 등록 가치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4.19 당일의 일기로 본다면 개인이 겪은 생생한 경험을 기록한 기록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것이 일기로서 유일한 것이냐 하는 점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기들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예를 들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4.19 당시 명성여고 2학년이던 이재영이 1959년 9월 12일에서 1960년 10월 11일까지 기록한 것으로, 4.19 당시 시위에 참가한 내용이 있는 일기(소장번호 한박3, 2011년 기증)도 기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도 함께 조사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 기록을 수기로 볼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수기의 원본 여부에 따라 가치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내가 겪은 4.19 데모」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당시 데모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록 내용에 나오는 전단지도 함께 등록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현상

- 九江노-트工業株式會社(1958?-?)에서 생산한 노트에 작성된 수기임.
- 표지 및 중간에 '李丙台' 붉은 도장이 찍혀있음.
-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문제없음.

2) 내용 및 특징

- 1960년 당시 동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병태가 4.19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한 바를 서술함.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던 오전 9시 20분경부터 경무대 앞 발포가 있었던 오후 1시 40분경 직후까지, 시위 참가자였던 이병태의 이동경로인 동성고 - 종로 - 국회 앞 - 경무대 앞 - 국회 앞의 4·19 상황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생생하게 서술되어 있음.
- 내용상 이병태는 주로 대열의 후미에 위치하여 전단지를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마찰, 학생 시위에 대한 군중들의 호의적인 태도, 경찰의 최루탄 및 실탄 발사 등을 목격한 것으로 보임.
- 역사적으로 4·19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되며, 이 자료와 관련자들의 증언이 더해져 동성고등학교의 4·19 참여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짐.
- 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기록이 1960년 4월 19일에 한정되어 있어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3) 문헌자료

- 동성 4·19혁명 새 백서 편찬위원회, 『東星의 4·19혁명』, 2018

4) 문화재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먼저 이 ‘이병태 일기’의 작성시점이 4·19로부터 멀지 않아 보이므로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볼 때, 기록 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상당하다고 생각됨.
- 내용 역시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의 시각으로 4·19의 현상이 생생하게 재현되었다는 점, 이후 동성고의 校史 서술의 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음.
- 다만 문화재가 갖는 특수한 희소성을 감안하면, 다른 유사 기록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예를 들면, ‘이병태 일기’는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재영 일기’와 비교될 수 있는데, 적어도 ‘일기’라는 형식과 분량적인 면에서 볼 때 ‘이재영 일기’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됨.
- 그러므로 이 ‘이병태 일기’의 문화재 지정은 유사 기록물인 ‘이재영 일기’ 문화재 등록 여부까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향후 수집될 가능성이 있는 4·19 관련 유사 수기 및 일기에 대한 판단까지 동반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양적으로 더 많은 5·18 일기의 문화재 지정까지 생각해야하는 문제임.

8.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8차 소위원회 결과보고

국가등록 제292호 「경주 우안 양수장」 현상변경(양수장 이전)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8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소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0.7.28.(화) 10:30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 위원 : ○○○, ○○○, ○○○, ○○○, ○○○
- 회의 안건 : 국가등록 제292호 「경주 우안양수장」 현상변경(양수장 이전)
- 회의 결과 : 조건부 가결

다. 보고내용

○ 추진경과

- '20.4.21. '20년 제3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류

-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
- 소위원회 위원 : ○○○, ○○○, ○○○, ○○○, ○○○, ○○○

- '20.5.13. '20년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심의

→ 보류

- 해체, 이전, 설치 전 과정에 대한 기록화 필요
- 설비 제조업체 협의, 과거사진 분석 등을 통해 양수 시스템을 확인하여 과거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계획 필요

○ 주요내용

내 용	검토의견
(1) 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우안양수장(국가등록 제292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 ○ 신청내용 : 경주 우안양수장 이전	*조건부 가결 ○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시행 - 구체적인 해체계획 및 해체기법

내 용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장 해체 및 재설치 - 주변 부대시설(시설 설비 등) 이전 - 관람객 편의시설(주차장, 안내판, 휴게 공간, 전시 자료) 설치 ※ 보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화 보고서 용역 추가 발주 • 과거 사진 분석하여 기계 배치도 작성, 이권 시 펌프장비 기존 위치에 재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장 하부구조, 주변 부대시설(시설설비 등) 보존·재현 범위 선정 - 양수장 상부 목조 교체 부재 선정 및 이축 기법 - 주요 장비(설비) 이전 설치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

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주변에서 오·폐수 처리 시설 설치·운영하고자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1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서울 중구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1) 허가 받는자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2) 허가내용 ○ 대상위치 :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17 (1구역 내, 이격거리 약25m) ○ 세부내용 :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운영 ※ 개착정거장 공사 완료 후 원래 상태로 복구 -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9.3m×3.6m×3.048m(H)] - 차폐 가설울타리 설치 (H=6m×L=12m) - 배수관(Ø10cm) 연결(보도블럭 하부 굴착 : 폭15cm 깊이20cm) (3) 허가기간 ○ '20.8.18. ~ '24.6.29. (4) 참고 ○ 전문가 자문의견 <○○○('20.8.13.)> - 서울역 건물과 시각적, 경관적으로 분리된 위치이고 공사기간 동안 가설형식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이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허가	'20.8.18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